



Global Market Report 14-049

2014.12.10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

목 차

요 약

I. 개요

- | | |
|---|-----------------------|
| 1 | 1. TBT 정의와 지난 10년간 동향 |
| 2 | 2. 지역별 TBT 동향 요약 |

II.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 | | |
|----|----------|
| 4 | 1. 유럽 |
| 8 | 2. 북미 |
| 13 | 3. 중동 |
| 19 | 4. 아프리카 |
| 24 | 5. 동남아시아 |
| 28 | 6. 오세아니아 |
| 31 | 7. 서남아시아 |
| 34 | 8. 중남미 |
| 45 | 9. CIS |
| 50 | 10. 중국 |
| 56 | 11. 일본 |

III. 향후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 | |
|----|----------------|
| 62 | 1. 향후전망 |
| 63 | 2.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 64 | 3. 정부간 협업 필요 |

요 약

□ 개요

- 1995년 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비관세 장벽이 증가였으며,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은 지난 10년 간 10배 이상 많아짐.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급증
- 또한 2000년대 이후 신흥국들의 TBT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신흥국들의 산업화로 자국산업 및 역내시장 보호,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결과임.
- TBT는 국민건강, 환경 등 선의의 목적으로 제정되지만 무역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

□ 지역별 TBT 동향 및 전망

- (유럽) EU 중심으로 공동 TBT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기술규정 제정보다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북미)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 인증을 채택하고 있으며, 멕시코 역시 일부 인증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증규격을 인정하고 있음. NAFTA 3국의 경제의존도 상승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
-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 TBT가 도입되고 있으며, 할랄인증 등 종교 영향의 TBT도 증가 추세
- (아프리카) 거의 전무했던 TBT가 산업화를 계기로 2010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소재나노, 정보디지털 관련 TBT도 통보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전기전자 기업들의 이전으로 관련 TBT는 증가 추세이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추진으로 공동 TBT도 증가할 전망

-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동표준 및 인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호 경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 TBT가 증가하고 있음.
- **(서남아시아)** TBT 건수는 적지만 교역의 급격한 증가 및 FTA 체결 증가에 따른 자국 산업보호 수단으로 TBT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무역수지적자,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TBT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 **(CIS)** 러시아 주도로 관세동맹(CU)이 형성되고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추진함으로써 공동 TBT 증가 전망
- **(중국)**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 추진과 산아제한 정책 폐지 등으로 환경, 위생, 유아용품 관련 TBT는 증가 추세 있음.
- **(일본)**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실버산업 관련 TBT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향후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 **(전망)** TBT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협정별 공동 TBT가 증가할 전망
- **(대응전략)** 이를 대비해서 한국기업들은 R&D 투자, 해외인증취득, 지역협정별 공동 TBT 우선 대응 등의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간협력)** 또한 주요교역국과의 규격통일 및 상호인정제도(MRA) 체결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TBT 대응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I 개요

1. TBT 정의와 지난 10년간 동향

□ TBT의 정의와 종류¹⁾

- (정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이란,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함.
 -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생산,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특성 및 생산방법과 관련 된 강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기술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등 선의의 목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어 기술규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음.
 - ▶ 하지만 기술규정들이 무역에 왜곡을 초래할 정도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WTO에서는 TBT 협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음.
- (종류) TBT는 크게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로 분류 가능
 - (기술규정)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정이라 하더라도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TBT로 작용
 - (표준) 기술규정에서 명시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 TBT로 작용 가능
 - (적합성 평가절차)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도 TBT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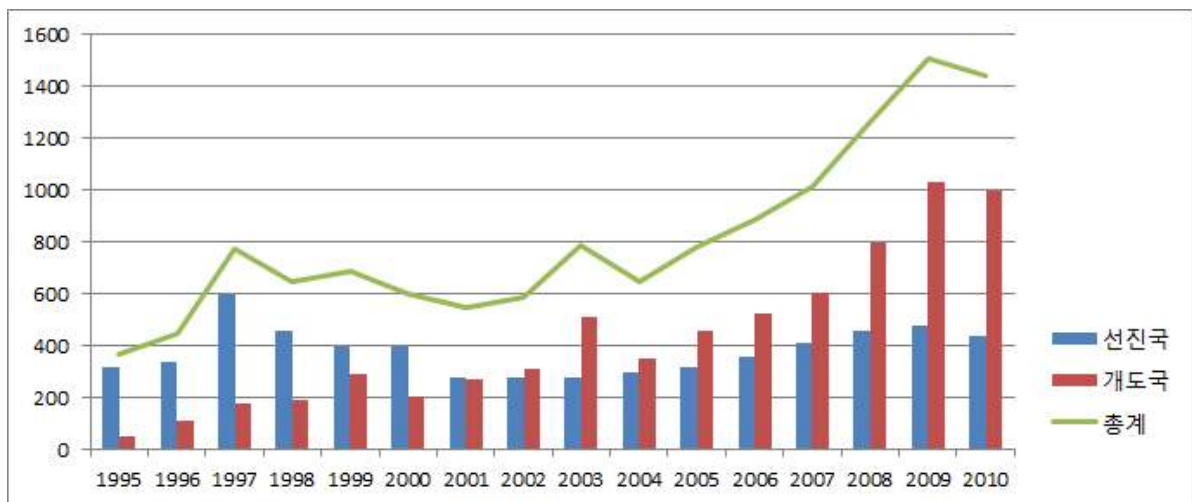
□ 지난 10년 TBT 동향

- (WTO 출범과 TBT) 1995년에 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비관세장벽, 특히 TBT가 증가하게 됨.
 - WTO TBT 협정에 따라 각국은 무역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WTO TBT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1) 국가기술표준원, 2013.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 본 보고서는 WTO에 통보된 TBT 사례를 통해 TBT 동향을 분석코자 함.
- (10년간 TBT통보문 추이) 지난 10년간 WTO에 통보된 TBT 사례는 2004년 146건에서 2013년 1508건으로 약 10배 증가
- 특히 2001년까지 선진국들이 TBT 통보문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그 이후 신흥국들의 TBT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TBT 통보문의 70%를 차지

<선진국, 개도국 TBT통보문 추이>



자료: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WTO.

- 이는 신흥국들의 산업화로 자국 산업 및 역내시장 보호, 그리고 선진국들이 제정한 국제표준을 도입하면서 야기된 결과임.
- (금융위기와 TBT) 더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TBT 통보건수가 급증하기 시작
- 2008년 866건 이었던 WTO TBT 통보문은 2009년 1163건으로 급증하고 2013년에는 150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이는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세운 결과로 분석됨.

2. 지역별 TBT 동향 요약

- (유럽) EU에서 TBT를 통보하면 회원국들은 이를 도입해서 법제화하고 있음. 또한 신규 제정된 기술규정보다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북미)** 미국이 북미 지역의 TBT 동향을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증이 있으며 멕시코는 미국의 인증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
-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설립한 표준인증기구(GSO)를 중심으로 공동 TBT가 증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 등 종교 영향의 TBT도 도입 중임.
- **(아프리카)** 거의 전무했던 TBT가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부와 남부에 TBT가 집중되어 있으나 서부로도 확대될 전망.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소재나노, 정보디지털 관련 TBT도 통보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전기전자 기업들의 이전으로 관련 TBT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추진으로 공동 TBT도 도입 가능
- **(오세아니아)** 경제·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동 표준을 도입하는 등 공동 TB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의존도 증가로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음.
-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역시 TBT가 거의 없었지만, 교역의 급격한 증가 및 FTA 체결 증가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TBT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중남미)**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해온 중남미 국가들의 TBT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증가해왔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무역수지적자,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CIS)** 러시아 주도로 관세동맹(CU)이 형성되고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추진함으로써 공동 TBT 증가 추세
- **(중국)**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 추진과 산아제한 정책 폐지 등으로 환경, 위생, 유아용품 관련 TBT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실버산업 관련 TBT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II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1. 유럽

가. 유럽 시장 개요

□ (세계최대 단일시장) 유럽은 현재 GDP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

- IMF에 따르면, 유럽은 2013년에 17조 4천억 달러의 GDP 규모 및 5조 8천억 달러의 상품 수입 규모를 기록한 세계 최대의 시장임.

□ (경기 회복세 지속) 2014년부터 민간소비, 민간·정부 투자, 대외 교역 등에서 성장세 예상

- 올해 유럽중앙은행이 6,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민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대외교역은 EU 내수시장 회복 및 미국 경기 회복과 맞물려 2014년 3.7%, 2015년 5.2%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²⁾

□ (소득수준 및 산업 다양성) 유럽 각 권역국가들의 소득 및 산업기능이 다양

-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권역별 산업과 기능이 특화되어있고 소득수준이 다양함에 따라 EU 역내 교역비중이 57%로 매우 높음.
 - 서유럽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R&D 중심, 동유럽 지역은 아웃소싱 위주의 제조업 중심으로 서유럽 및 중·동부유럽 간 분업체계 구축

□ (동유럽 인프라 개선) 2014년~2020년 동안 1,809억 유로 규모의 동유럽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 유럽의회는 EU기금 지원을 통해 지능형빌딩, 고속철 인프라 등 중대형 동유럽 인프라 개선프로젝트를 진행 중

2) 유럽집행위원회, 2014. 「Spring 경제전망보고서」

□ (무역협정 체결 증가) 현재 협상 중인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비롯하여 다수 협상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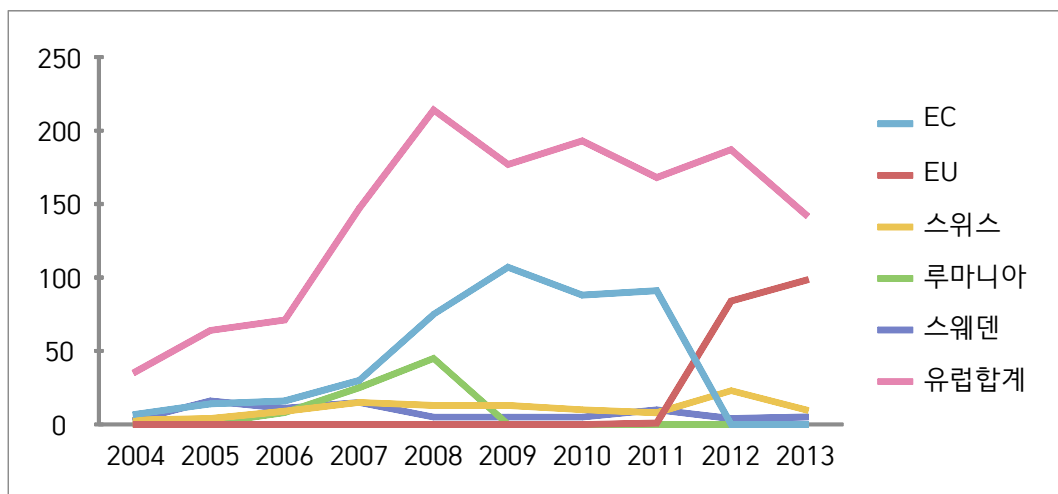
- EU는 EU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지역주의에서 WTO체제를 통한 다자주의로 방향 전환 중임.
- 역내시장의 한계에 따라 역외시장 개발을 위해 다수의 무역협정 체결 중

나. 유럽 TBT 동향 및 전망

□ (증가 추세) 유럽에서는 2007년을 기점으로 매년 150건 이상의 TBT 통보

- 2004년, 2007년에 다수의 국가가 EU에 가입하면서 EU의 TBT 건수 급증

<유럽 상위 5개국 TBT통보문>³⁾



□ (EU 공동 TBT) 유럽에서는 EU 공동 TBT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동향) EU 회원국들은 EU 단위에서 제정한 기술규정 및 인증 등을 자국으로 도입, 법제화한 후 WTO에 통보
- EU는 규제를 신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존 기술규정이 전 분야에 이미 충분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됨.

3) 이하 모든 TBT 관련 통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포털(www.knowtbt.kr)의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

-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의 대기배출가스 규제에 EURO 6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EURO 3, 4를 강화한 규제
- (전망) EU 비회원국들의 EU 가입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비회원국들 역시 EU의 TBT를 도입하고 있어 EU 공동 TBT 동향은 강화될 전망
 - 28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EU에 현재 터키, 아이슬란드 등이 가입을 추진 중임.
 - EU 비회원국 스위스는 개별 TBT를 도입하지만 전기전자기기, 에너지 품목 등은 EU의 기술규정 및 표준 지침을 반영하고 있음.
 - 스위스의 TBT 통보문 G/TBT/N/CHE/177은 전기 에너지 및 전력 측정기에 관한 유럽 의회 지침을 스위스 법으로 옮겨 통보한 신규 규정
 - 또한 G/TBT/N/CHE/19는 에너지 품목의 통보문으로 EC 지침안에 따라 새로운 승용차에 연료사용 및 이산화탄소 방출의 상대적 비교를 포함하는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함.
 - 터키 또한 EU의 WEEE(폐가전제품 의무 재활용규제)와 RoHS 지침을 채택하여 EU의 환경규정을 수용

<유럽 상위 10개국 TBT 통보문 건수 및 비율>

국가	통보건수	비율	순위
EC	428	30.6%	1
EU	183	13.1%	2
스위스	108	7.8%	3
루마니아	79	5.6%	4
스웨덴	79	5.6%	4
프랑스	75	5.4%	6
그루지아공화국	70	5.0%	7
슬로베니아	60	4.3%	8
체코	59	4.2%	9
알바니아	51	3.6%	10
기타	45	14.8%	
총계	1400	100%	

* 주 : 비EU 국가는 음영 처리하여 표시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유럽 내 권역별로 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어 있어 TBT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루 통보되는 경향이 있음.

<유럽 전체 TBT 항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화학세라믹	297	21.2%	1
식의약품	237	17.0%	2
기계	135	9.7%	3
건설	132	9.4%	4
생활용품	125	9.0%	5
전기전자	96	6.9%	6
교통/안전	86	6.1%	7
에너지	68	4.9%	8
정보디지털	53	3.8%	9
농수산물	51	3.6%	10
기타	120	8.4%	
총계	1400	100%	

- (화학물질) 특히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제 강화 중
 - 2014.3월 장난감 내 비스페놀 A 및 바륨 성분 수치 제한 강화와 같이 ECHA (유럽화학물질청)는 기존 화학물질 관련 TBT를 강화하고 있음.
 - 화학물질 관련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가 있으며 EU는 이들 규제를 강화하는 중
- (환경) 친환경, 재생용품, 웰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9%대로 성장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 201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규제인 EURO 6를 비롯하여 CE (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등과 같은 강화된 환경 규제 및 강제 인증 도입

2. 북미

가. 북미 시장 개요

□ (세계 최대시장) 북미지역은 전 세계 경제력의 25%, 수입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

○ (경제규모) IMF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 16.8조 달러로 세계 1위, 캐나다의 경제규모는 1.83조 달러로 세계 11위,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1.32조 달러로 세계 15위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2조 3,350억 달러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6%), 캐나다의 수입시장 규모는 4,809억 달러로 세계 12위, 멕시코의 수입시장 규모는 3,794억 달러로 세계 15위

○ (구매력) 풍부한 소비인구,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

▶ 2015년에도 북미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망으로, 북미시장의 중요성 확대

□ (완전개방 시장)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

○ 미국과 캐나다 모두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완전개방 시장

□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국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 NAFTA는 1988년 체결된 미·캐나다 FTA에 1994년 멕시코를 추가한 협정

○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FTA로 주목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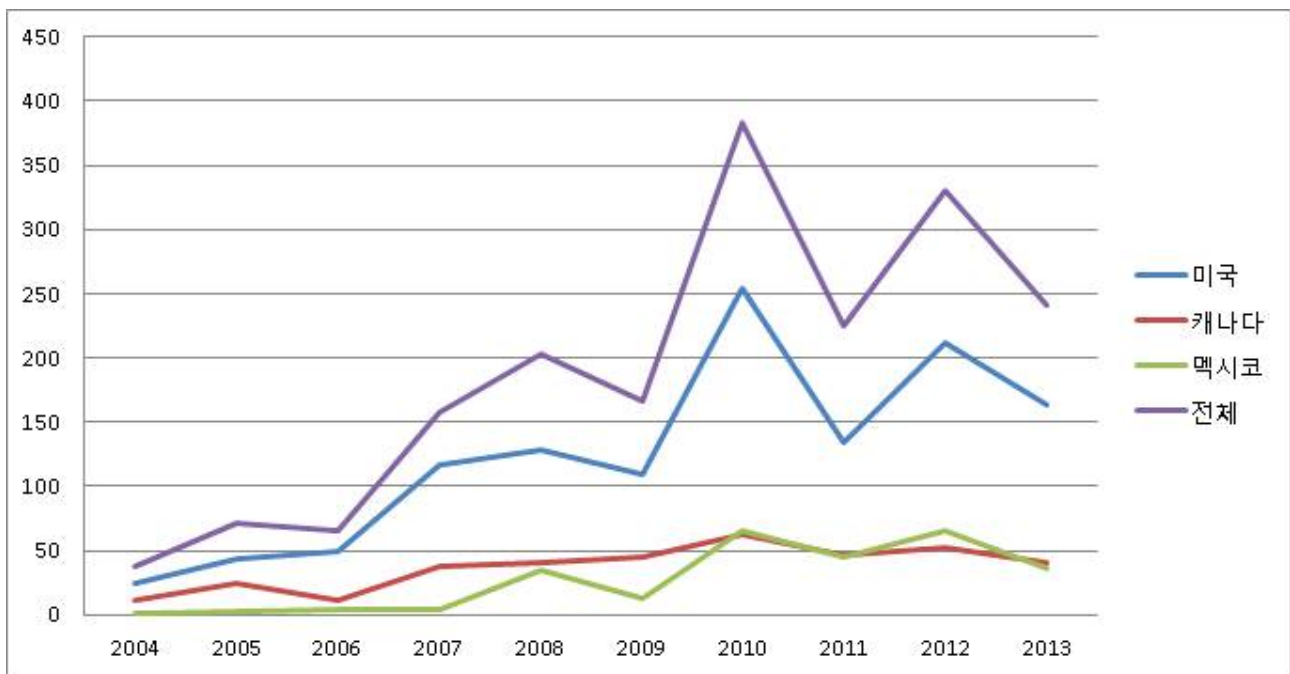
○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막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

나. 북미 TBT 동향 및 전망

□ (증가추세) TBT 통보건수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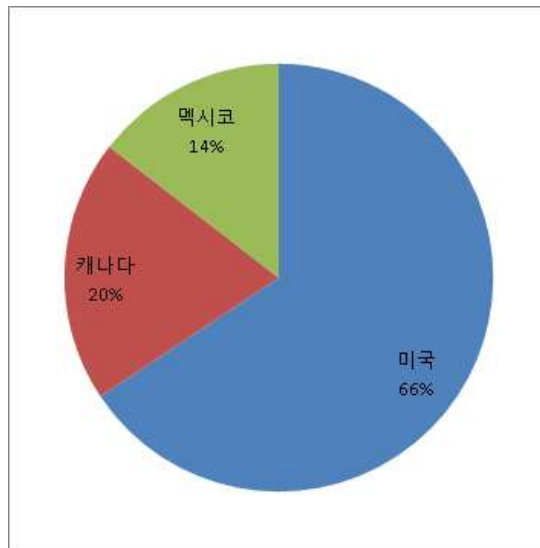
<북미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북미지역의 TBT 통보건수는 10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 2010년에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54건, 6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멕시코는 2010, 2012년에 각각 66건으로 최고치 기록

□ (국가별 동향) 미국의 TBT 통보건수가 66%로 압도적 비율 차지

<북미 국가별 TBT 통보 비율>



- 북미지역 10년간의 TBT 통보건수 전체 1880건중 미국 1234건(66%), 캐나다 373건(20%), 멕시코 273건(14%)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

□ (품목별 동향) 식의약품 관련 TBT 통보건수가 414건(22%)으로 최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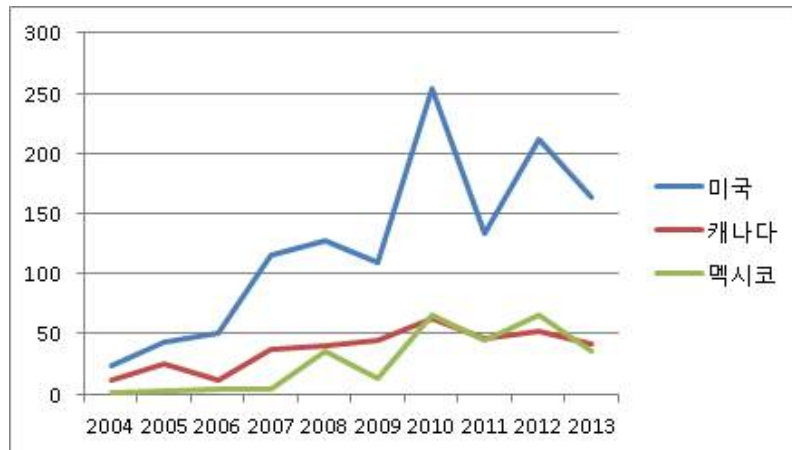
<북미 전체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415	22.07%	1
교통/안전	317	16.86%	2
전기전자	300	15.96%	3
화학세라믹	263	13.99%	4
생활용품	188	10.00%	5
에너지	119	6.33%	6
농수산물	65	3.46%	7
정보디지털	63	3.35%	8
바이오환경	50	2.66%	9
기계	42	2.23%	10
기타	58	3.09%	
총계	1880	100%	

□ (NAFTA 공동 TBT) NAFTA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공동 TBT가 증가할 전망

- (동향) NAFTA 3개국의 지난 10년간 TBT 통보 동향을 보면 미국의 TBT 증감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TBT 통보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3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이러한 동향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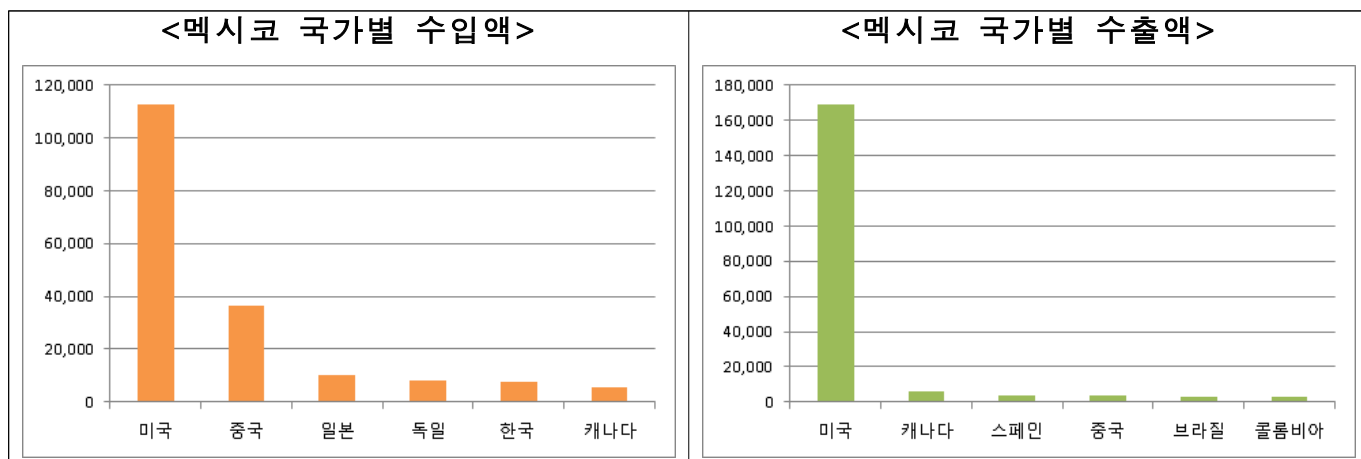
<북미 TBT 통보문>



- (캐나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적용되는 인증으로는 CSA-us 인증 등이 있으며 캐나다의 대미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아 향후 이러한 공동 인증은 증가할 전망
 - *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약 70%, 수입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 파트너
 - 캐나다의 CSA 인증은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등의 품목을 포괄
 - 캐나다와 미국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캐나다 및 미국 동시 적용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캐나다 및 미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미국의 c-UL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⁴⁾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cic.ktl.re.kr/findCertOfNation.do>> (2014.12.09.)

- (멕시코) 멕시코 역시 일부 규격에 대해 미국의 인증을 멕시코의 인증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동 TB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에 의해 강화될 전망
- 멕시코 정부는 2010년 미국의 ETL 인증이 멕시코의 NOM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미 인증기관의 동등함을 인정⁵⁾
- 멕시코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인증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동 TBT 정책은 강화될 전망



자료원: KITA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certinfo.or.kr/detailBbs.do?bbsNo=532&bbsKindId=2>> (2014.12.09.)

3. 중동

가. 중동 시장 개요

□ (지속적인 성장)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을 필두로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 IMF에 따르면, 2009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GCC 국가들은 0.3%의 경제성장 유지
 - 2014년 현재까지 GCC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
 -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2위 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용하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장 등에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추진력 보유

□ (풍부한 자원) 2000년 이후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오일 머니 유입

- 전 세계 석유 매장량에서 중동은 8,071억 배럴로 48%의 비중을 차지⁶⁾
 - 중동국가들은 해외 석유 메이저들과 협력하여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킴.
 - 석유 채굴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 산업 다각화도 노력 중
-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카타르 등 기타 자원 또한 풍부함.
 - 카타르는 고품질의 청정 연료인 GTL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 Post-Oil 시대 대비를 위한 산업다각화 추진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을 통해 공공주도형 경제에서 탈피 시도
 -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 민영화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환경개선, 제조설비 도입금융 지원 등

6) BP, 201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걸프협력회의) 공동시장 출범 및 권역 단위의 FTA 체결

<걸프협력회의(GCC)>

- 목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 확립
-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료원: 매일경제

- GCC 6개 회원국은 초기에는 안보 측면의 협력이 주 목적이었으나 이후 경제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둬.
- 2003년 관세동맹 출범, 2007년 공동시장 창설

나. 중동 TBT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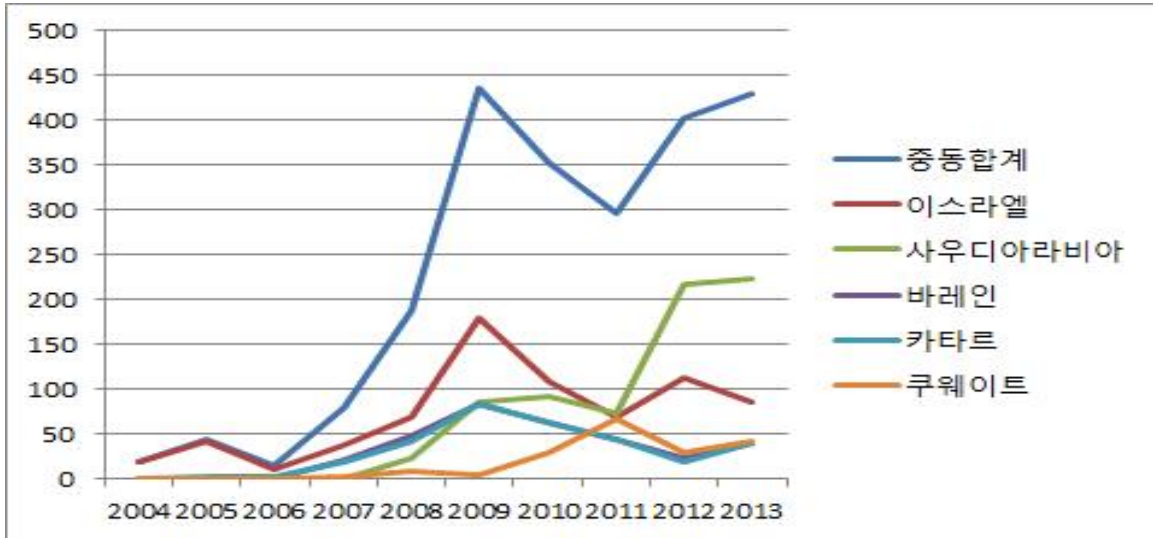
1) 지난 10년간 중동 TBT 동향

□ (증가추세) ‘09년을 기점으로 중동 지역 내 전체 TBT 통보문 건수 증가

- 2008 ~ 2009년 사이에 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다가 “아랍의 봄” 으로 인해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최근 각 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

<중동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GSO 및 이스라엘 편중) TBT 통보문이 GSO 회원국 및 이스라엘에 편중

- 이스라엘,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가 통보문 건수 상위 5개국
 - 이스라엘과 GSO 회원국인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을 제외하고 중동 내 기타 국가에서는 TBT가 거의 통보되지 않음.
 - 특히, 상위 2개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전체 통보건수의 54.2%를 차지
-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상위 통보국들은 모두 걸프협력회의 표준인증기구(GSO :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회원국들임.
 - GSO는 회원국 간 공동 적합성인증 절차 및 규격 초안을 마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시장진입규제를 시행 중

<중동 국가별 TBT 통보 건수 및 비율>

국가	통보건수	비율	순위
이스라엘	729	27.4%	1
사우디아라비아	714	26.8%	2
바레인	322	12.1%	3
카타르	316	11.9%	4
쿠웨이트	183	6.9%	5
아랍에미리트	170	6.4%	6
오만	133	5.0%	7
이집트	48	1.8%	8
요르단	46	1.7%	9
총계	2661	100.0%	

- (품목별 동향) 전체 TBT 통보건 2661건 중 식의약품 관련 TBT 통보문이 1097건(41.2%), 전기전자 575건(21.6%), 교통/안전 211건(8.0%)으로 이슬람교로 인한 식의약품 TBT 비율이 특히 높음.

<중동 전체 TBT 통보문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1097	41.2%	1
전기전자	575	21.6%	2
교통/안전	211	8.0%	3
생활용품	169	6.3%	4
화학세라믹	128	4.9%	5
기계	111	4.2%	6
건설	88	3.3%	7
농수산물	78	2.6%	8
에너지	68	2.4%	9
소재나노	65	3.0%	10
기타	30	1.1%	11
바이오환경	29	1.0%	12
정보디지털	12	0.4%	13
총계	2661	100.0%	

- (GCC) 식의약품 관련 TBT통보문이 많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외적으로 전기·전자제품에서의 TBT 비율이 높음.
- GCC회원국들은 GSO를 통해 할랄 식품 관련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인증 수준은 개별국가에서 결정하여 규제에 반영
- 사우디는 2007년부터 연평균 15.4% 고속성장하는 전기·전자제품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TBT 통보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주력화로 전기·전자에 집중된 TBT 및 유대교 문화로 인한 식의약품 TBT 증가
 - (전기·전자) 이스라엘은 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비율이 높음.
 - (식의약품) 유대교 문화에 맞는 식품만을 수입하는 코셔 인증을 의무화함. 코셔 인증은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가공 절차에 이르는 식품제조 전체 공정을 포괄하는 인증이며 수입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 중

2) 중동 TBT 전망

□ (GCC 공동 TBT) GCC 회원국이 모두 가입한 GSO는 해당 국가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공동표준 및 인증을 준비 중

- 역내 국가들 간의 TBT 공동 대응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 현재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완구·전자기기·자동차 및 타이어·식의약품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 적합성 평가절차 및 적합성 마크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화학세라믹, 소재나노 등의 품목으로 확장하여 GSO에서 규격을 제정하면 개별 회원국들이 기술규정 초안을 근거로 사용하는 추세로 이는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전망
- GCC 회원국 간에는 공동 시장을 출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쿠웨이트 KUCAS 인증에 적합한 제품들은 나머지 GCC 5개국에는 간소화된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

□ (탈석유화와 TBT) 탈석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TBT 증가 전망

-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동 국가들은 탈석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등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실시
 - 대표적으로 중동국가들은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을 통해 공공주도형 경제에서 탈피 시도
- 또한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Post-oil시대에 대비한 장기발전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 및 재건 사업 진행
 - 카타르 월드컵, 두바이 엑스포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및 재건 사업이 진행 중
- ▶ 석유의존형 경제 탈피 목적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은 TBT 증가에 기여할 전망

□ (식의약품 관련 TBT) 이슬람교에 적합한 식품 및 최근 건강 트렌드로 인한 TBT 증가 전망

- (할랄, 코셔인증) 유대교 및 이슬람 문화에 적합한 식품만을 도입하기 위해 코셔 인증, 할랄 인증 등의 규제와 부합하는 TBT가 증가할 전망
- (웰빙식품) UAE가 2012년에 다이어트 식품 관련 TBT를 통보하면서 중동 내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웰빙 트렌드를 보여줌.
 - UAE의 TBT 통보문 G/TBT/N/ARE/98, 99, 100, 101, 102, 103은 식이조절 식품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식품의 품질요건, 샘플링, 시험 방법, 운송과 저장, 영양성분 표시 라벨링에 관한 것임.

4.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 시장 개요

□ (성장과 젊음) 미개발 신흥국인 아프리카는 지구 최후의 성장엔진

-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20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2011~2015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엔진으로 부각

□ (풍부한 자원) 아프리카는 원유 등 에너지와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 풍부

□ (지역편차) 경제규모 및 시장이 소수 국가에 편중

-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0개국 2013년 GDP 합계 1조 6천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인프라 확충) 자원 수출을 통한 재원 확보, 세계 각국의 지원과 투자로 인프라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 지역별·국가별 국가발전전략 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급증
 - 아프리카 주요국은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20년까지 투자 소요 금액은 약 933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월드뱅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2008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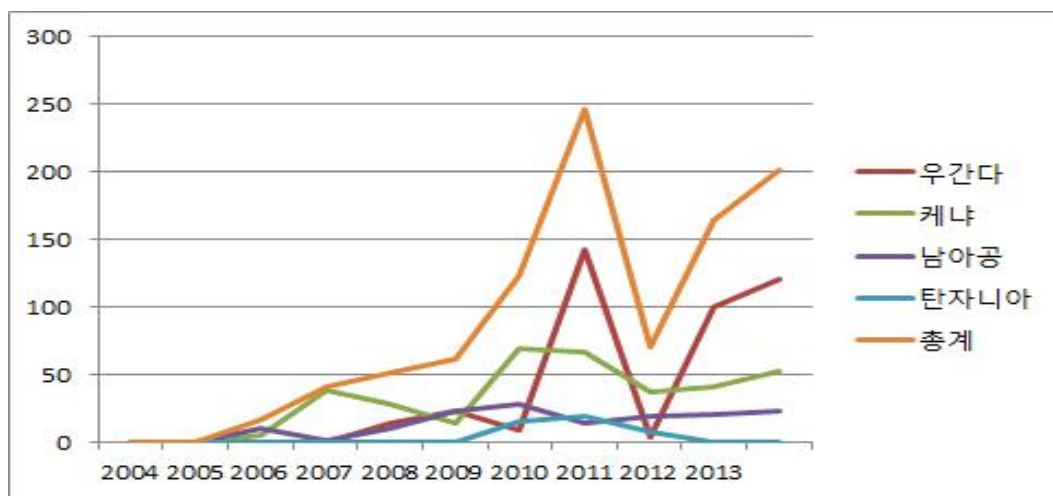
나. 아프리카 TBT 동향 및 전망

1)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TBT 동향

□ (급격한 증가추세) 지구 최후의 성장엔진에 발동이 걸리면서 관련 TBT도 급격히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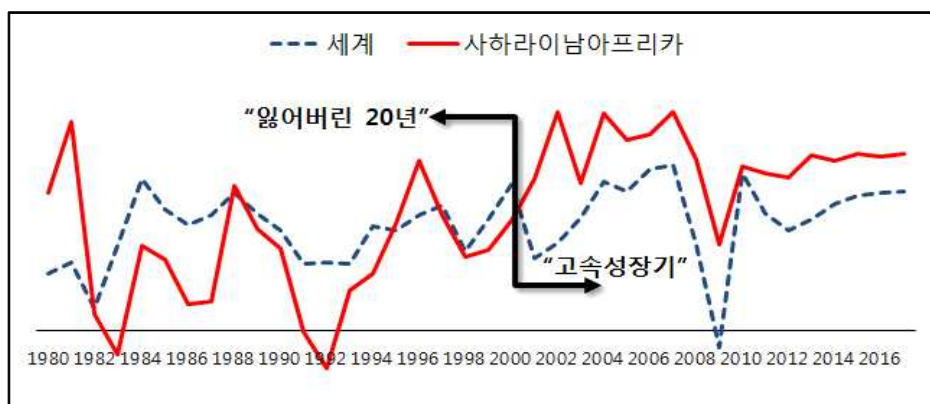
- 2004년 거의 0에 가까웠던 TBT 통보문 건수가 6년만인 2010년 240개를 초과하였으며, 2013년에도 231개를 기록

<아프리카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의 “고속성장기” 인 2000년대 들어 시작됨.
- 반대로 2000년 대 전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는 TBT 건수가 전무함.

<세계 對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 IMF

□ (지역적 편중) 지난 10년 간 아프리카의 TBT 통보문 건수는 1052건이었으며, 동부의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및 남부의 남아공에 90%이상이 편중되어 있음.

- (동부) 특히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 East African Federation) 국가들이 전체 아프리카 통보문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 목표 : 정치·경제동맹, 단일통화
- 가입국 :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자료원: 'Rich Africa, Blue Africa' 경제·통상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

- (남부) 남부해안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경제 대국인 남아공에서 TBT가 증가하고 있음.

<아프리카 국가별 TBT 통보 건수 및 비율>

국가	통보건수	비율	순위
우간다	414	41.32%	1
케냐	355	35.43%	2
남아공	153	15.27%	3
탄자니아	44	4.39%	4
보츠와나	36	3.59%	5
총계	1043	100.00%	

- (품목별 동향) 아프리카는 여전히 농업중심 사회이지만 2005년 이후로는 소재 나노, 바이오환경, 정보디지털 등의 분야에서도 TBT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아프리카 전체 TBT 항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352	33.46%	1
화학세라믹	153	14.54%	2
농수산물	109	10.36%	3
생활용품	85	8.08%	4
전기전자	85	8.08%	
에너지	69	6.56%	6
교통/안전	52	4.94%	7
건설	48	4.56%	8
기타	25	2.38%	9
기계	24	2.28%	10
소재나노	17	1.62%	11
바이오환경	17	1.62%	
정보디지털	16	1.52%	13
총계	1052	100.0%	

2) 아프리카 TBT 전망

- (TBT 통보국 다변화) 아프리카 남부에서 서부 및 동부로의 경제 중심축 이동으로 TBT 통보 국가가 다변화 될 전망
- 상기한 것과 같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시동이 걸리면서 TBT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 발전 중심축이 서부 및 동부로 이동함에 따라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TBT도 증가할 전망
 - IMF는 2014~2018년 아프리카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이 서부 6.4%, 동부 6.3%인데 반해 남부와 중부는 각각 4.7%, 4.4%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2013년 나이지리아 GDP는 5,200억 달러를 기록, 남아공 3,354억 달러의 1.6배에 달해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지위 획득하면서 TBT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EU의 TBT 차용) 아프리카 지역은 과거 유럽과 긴밀한 정치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유럽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유럽의 TBT 정책을 차용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됨.

- 실제로 케냐,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증 대신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유럽의 인증회사들에게 위임하고 있음.
- EU는 과거의 일방적 특혜가 아닌 상호시장개방을 근간으로 한 아프리카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 중이며,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TBT를 도입할 경우 수출기업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될 전망

□ (지역 공동 TBT) 아프리카에는 10개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며, 지역공동체 역내 국가들은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채택할 전망

- (EAC)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안전한 정치 연합인 동아프리카”를 비전으로 하고 있는 EAC는 EU처럼 정치연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은 향후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강화할 전망
 - EAC는 2006년에 표준화, 품질 보증, 계측 및 시험법(SQMT)의 운영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등 공동 TBT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또한 EAC 역내 국가간 교역은 2005년~2009년에 40% 증가할 정도로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급증하고 있어 공동 기술규제 수요도 높음.⁷⁾
 - 특히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불리는 케냐를 중심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등이 아프리카 기술규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역내 기술표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 (기타) 이외에도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기술규제 정책 채택 가능

7) EAC 홈페이지. <<http://www.eac.int>> (2014.12.09)

5. 동남아시아

가. 동남아시아 시장 개요

□ (성장과 젊음) 동남아시아가 가진 풍부한 젊은 인력

- 동남아시아는 연 평균 5%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의 원동력에는 전체 인구의 60~65%가 35세 이하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UN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생산연령 비중은 2050년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생산연령 인구가 나머지 인구의 2배를 넘는 인구 보너스 기간이 향후 30년간 지속될 전망

□ (풍부한 자원) 동남아시아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 풍부

- 바이오연료 및 식품, 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요한 팜오일의 생산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1만9천 톤), 말레이시아가 세계 2위(1만8천 톤)

□ (지역편차) 경제규모 및 시장이 소수 국가에 편중

- 1인당 GDP 기준 싱가포르를 미얀마의 60~70배이며, 세계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전체 148개국 중 싱가포르는 5위, 미얀마는 146위⁸⁾

□ (경제통합) 역내 경제통합·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 현재 동남아시아는 AEC(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한 역내 경제 사회적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가 예상됨.
- RCEP,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메가급 지역 FTA에 주도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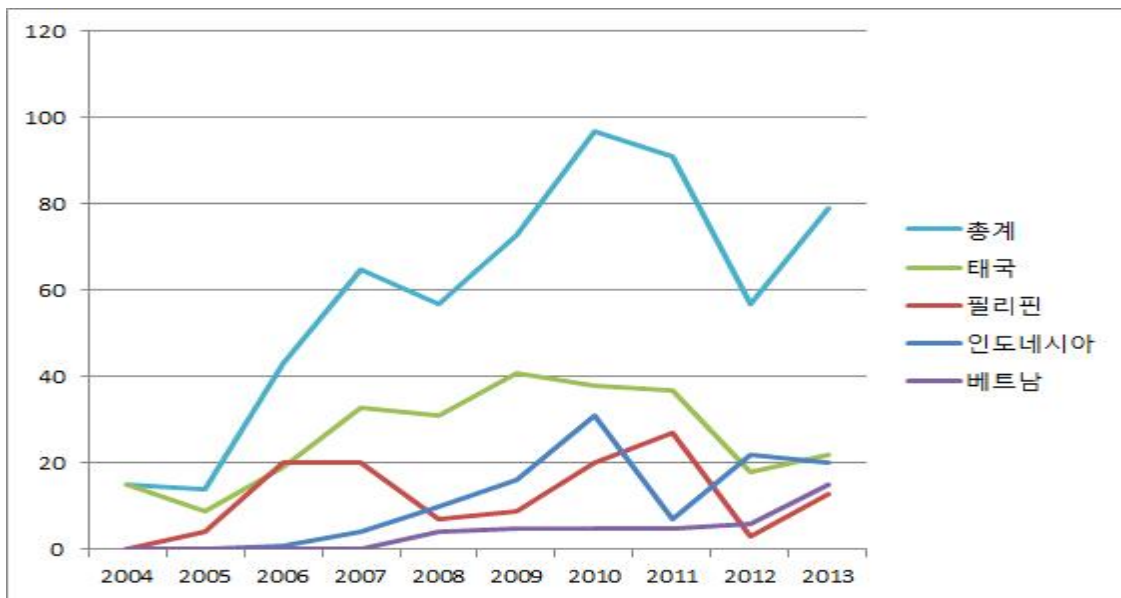
8) World economic forum Index

나. 동남아시아 TBT 동향 및 전망

□ (증가추세) 동남아시아는 연평균 5%의 경제 성장을 보이며 관련 TBT도 증가 추세에 있음.

- 2004년에 20건도 되지 않았던 TBT 통보문 건수가 2010년 97건을 기록 하였고, 2005년~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동남아시아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TBT 통보국 다변화) 지난 10년간 TBT가 소수국가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향후 통보국이 다변화됨으로써 TBT가 증가할 전망

<동남아시아 국가별 TBT 통보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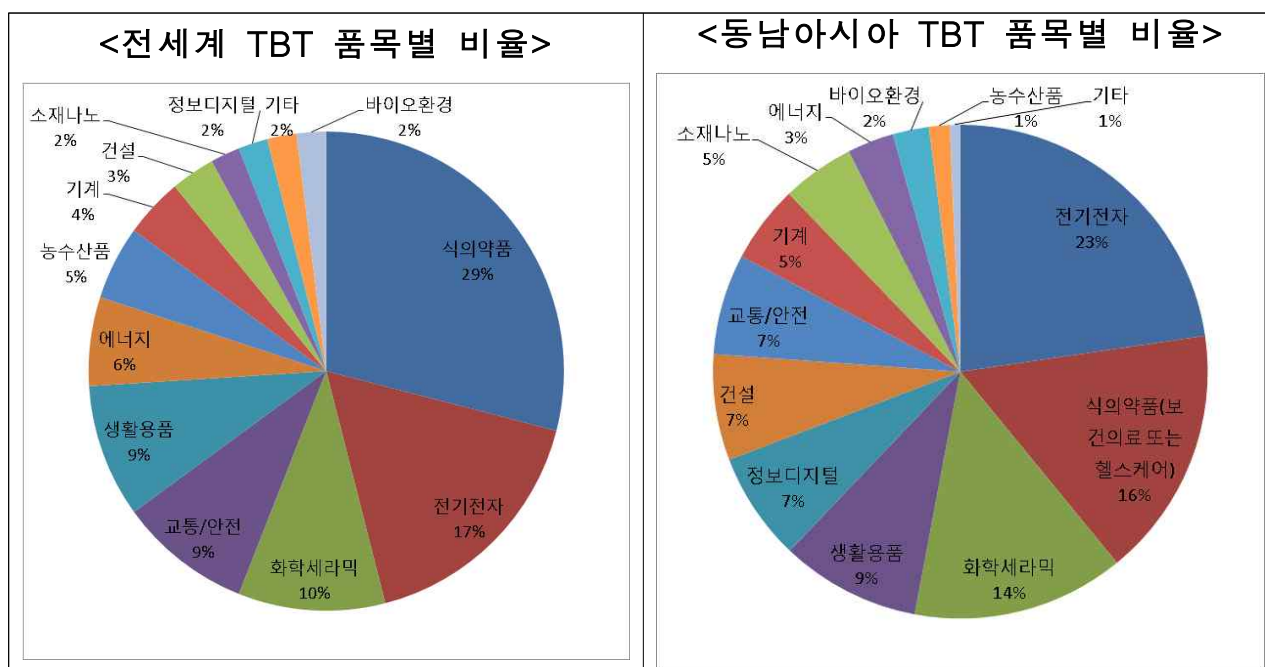
국가	통보건수	비율	순위
태국	263	44.50%	1
필리핀	123	20.81%	2
인도네시아	111	18.78%	3
베트남	40	6.77%	4
말레이시아	35	5.92%	5
싱가포르	16	2.71%	6
캄보디아	3	0.51%	7
총계	591	100.00%	

- 지난 10년간 동남아시아의 TBT 통보문 건수는 591건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고성장개발도상국에 속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약 70% 집중됨.
- 하지만 TBT를 거의 통보하지 않았던 싱가포르, 네팔 등의 국가에서 TBT 통보가 증가하면서 TBT 통보국 다변화 및 전체적인 TBT 증가가 예상됨.

□ (전기전자 관련 TBT) 동남아시아의 TBT 비율은 전 세계 통보문 추이와는 다르게 전기전자와 정보디지털 TBT 비율이 높으며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전 세계 TBT 통보문 중 식의약품 관련 TBT 비율이 가장 높음

- (배경)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대비 수익률 하락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서 관련 TBT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전망) UNCTAD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FDI 규모는 '09년 474억 달러에서 '12년 110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계속되는 전지전자 기업들의 이전으로 전지전자 분야 TBT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태국) 태국 내에 800개 이상의 전기전자 제조업체가 있으며, 태국의 주요 전자 수출 품목은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 태국의 전기전자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산업으로서 약 60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추산됨.
- 또한 태국에서 생산되는 디스크 드라이브(HDD)는 전 세계 HDD의 40%이상을 차지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에어컨(세계 2위), 세탁기, 냉장고(세계 4위) 등 가전제품 최대 생산국임.
- (필리핀)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여 전 세계 전기·전자 생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

□ (공동 TBT)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교역 원활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는 등 국가 간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AEC 진전으로 공동 TBT 동향은 강화될 전망

- 아세안 국가들은 중소기업들의 역내 수출을 활성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 산업 영역에서 국가간 상이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
- 상호인정협약은 대표적으로 고무기반 제품, 전통 의약품, 화장품, 관광업 등 7가지 부문에서 체결되고 있음.⁹⁾
- 나아가 동남아시아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진전 중이며 이는 공동 TBT 도입에 기여할 전망

<아세안 통합 추진 단계>

연도	주요 내용
2010	선발 6개국 역내 무역관세 완전철폐
2013	항공, 의료, 관광, 물류 등 서비스시장 완전 개방
2015	모든 회원국, 모든 산업부문 역내 교역시장 개방 EU와 같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대 공동체 창설(AEC)

*주: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추진¹⁰⁾

- 2015년까지 EU와 같은 공동체가 창설될 경우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동 TBT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9) 아세안경제공동체. 2012. 「Handbook for business 2012」

10) 아세안경제공동체. 2015. 「Thinking Globally, Prospering Regionally」

-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만큼 공동 TBT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아세안의 교역상대 비중(>)>

연도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ASEAN
1998	24.52	24.97	3.18	11.55	2.56	21.04
2008	11.26	10.80	9.02	10.8	3.94	25.51
2009	11.35	11.00	10.12	9.58	4.21	24.48
2010	10.06	10.71	10.83	9.83	4.29	24.98
2011	8.49	10.97	11.52	10.31	4.35	24.93
2012	9.80	9.30	12.42	8.82	4.52	24.6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6. 오세아니아

가. 오세아니아 시장 개요

□ (1차 산업 중심 경제)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농업, 광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

- (호주)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낙농업 선진국이며,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함.

□ (관광산업 육성) 오세아니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 환경의 변형 및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광 산업 육성에 특화

- 최근 주민들 사이에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 특히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광 산업의 육성을 적절히 결합시킨 생태 관광이 활성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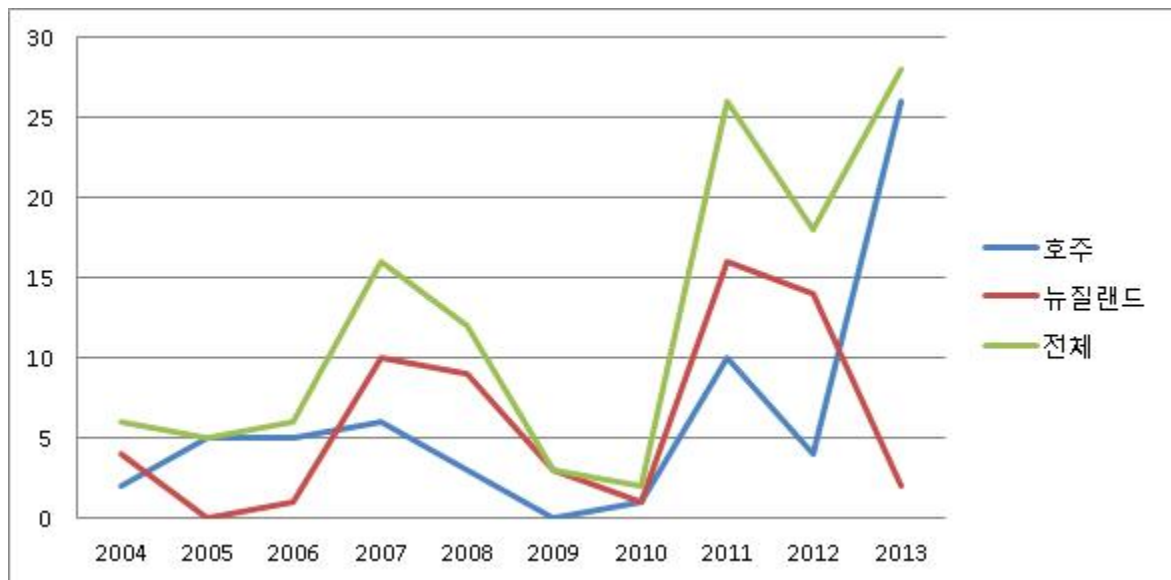
□ (경제 활성화 정책) 세계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침체되어 있던 경제를 재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추진

- (호주) 개방무역정책 추진으로 무역 활성화
- (뉴질랜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과 오클랜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 살리기 정책 등

나. 오세아니아 TBT 동향 및 전망

□ (증가 추세) 오세아니아 지역 전체 TBT 통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지속될 전망

<오세아니아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호주와 뉴질랜드의 TBT 통보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TBT를 통보하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1차 산업 중심의 관광국가로서 인증제도가 매우 까다로워 TBT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
 - 호주의 인증 관리 기관인 SAI 글로벌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필수 인증 미취득 제품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로 처벌함. 인증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증들은 사안에 따라 자주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로워 외국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표적으로 수입산 작업용 보호 장갑에 대한 품질 규정인 「AS/NZS 2161.2:2005 Occupational Protective Gloves」는 유럽 인증기준인 「EN 420:2003 Protective Gloves」에 근거하며 엄격한 품질기준을 요구함.

□ (품목별 동향) 오세아니아 전체 TBT 통보문 122건 중 전기전자가 43건 (35.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식의약품 28건(23%), 에너지 13건(10.7%)이 통보되었음.

<오세아니아 항목별 TBT 통보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전기전자	43	35.2%	1
식의약품	28	23.0%	2
에너지	13	10.7%	3
교통/안전	10	8.2%	4
정보디지털	7	5.7%	5
생활용품	7	5.7%	5
바이오환경	5	4.1%	7
기계	3	2.5%	8
농수산물	3	2.5%	8
화학세라믹	2	1.6%	10
기타	1	0.8%	11
총계	122	100.0%	

□ (공동 TBT)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책, 법률, 경제 등 분야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공동 TBT 역시 증가할 전망

- (통합동향) 호주와 뉴질랜드는 1983년에 인접경제무역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체결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관광 등의 자유화와 비관세장벽 폐지 및 양국 정책, 법률, 규제제도의 통합을 추진해 옴.
- 또한 1998년에는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을 체결
- (표준) 표준 분야에서 AS/NZS 형식으로 양국이 철강, 기계 등에서 공동 표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규격) 2013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래된 TV나 컴퓨터와 같은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규격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였음.
- ▶ 이처럼 단일경제블록화 경향을 보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TBT 정책은 강화될 전망

7. 서남아시아

가. 서남아시아 시장 개요

□ (세계 최대 소비시장) 서남아시아 시장은 35세 이하 젊은 층 중심의 16억 인구를 토대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각

- 맥킨지에 의하면 인도의 12억 인구 가운데 8억명이 35세 이하로 저소득층의 비율은 202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며, 중산층 이상의 인구수는 5억 8천 3백만 명으로 그 비율이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UN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 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서남아 4개국의 생산 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젊은층 중심의 시장 형성 기대

□ (인프라 구축) 인프라 개선, 도시화 개발 등의 정책 추진

- 지속적 경제성장과 제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기반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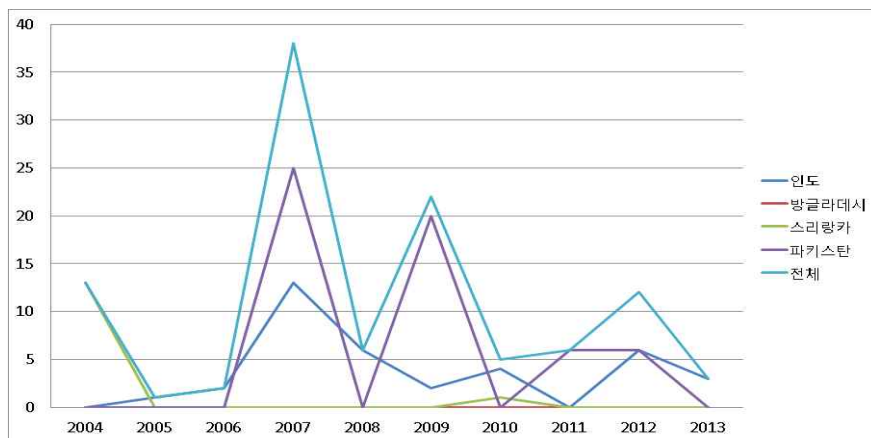
□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활동인구 증가,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전망

- 월드뱅크에 따르면, 세계경제 저성장 환경에서도 서남아지역은 2014년 5.3%대의 경제성장률 유지
- 20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연 6% 이상의 성장 지속 전망

나. 서남아시아 TBT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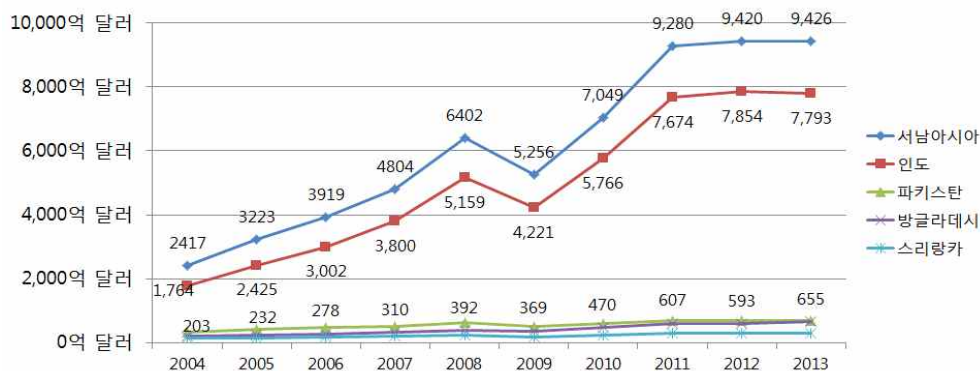
□ (전반적 동향 및 전망) 2004년 이전에는 0건에 가깝던 TBT 통보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서남아시아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동향) 10년간 서남아 지역 전체 TBT 통보건수는 총 108건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
 - 서남아시아 TBT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통보되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25건, 20건이 통보됨.
- (교역규모와 TBT) 하지만 서남아시아 전체 교역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20.4% 증가하고 있어 TBT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교역 규모 : 2,417억달러('04) → 5,256억달러('09) → 9,426억달러('13)

< 서남아시아 교역규모 (2004~2013) >



자료원 : WTO

- (FTA와 TBT) 또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FTA :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수단으로 TBT가 증가할 전망
- 더 이상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TBT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전망
- 파키스탄의 경우 2006년까지 TBT 통보문이 전무했지만 2007년 중국과 FTA 체결 직후 역대 최고치인 25건 통보

<파키스탄 FT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비고
기체결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최초 국가간 FTA 협정
	중국	2007.1.1. 발효
	말레이시아	2008.1.1. 발효
	SAFTA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파키스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부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7개국으로 구성
협상중	방글라데시	SAFTA와는 별도로 양국 간 FTA 협상중
	케냐	
	이란	미국-이란 관계 악화로 협상 중단 상태
	터키	
	GCC	2012년부터 협상
	인도	SAFTA와는 별도로 양국 간 FTA 협상중
검토중	인도네시아	2012년 체결
	이집트, EU, 바레인, 싱가포르, 태국, ASEAN, 질랜드, 한국	지난 몇 년간 한-파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증진 및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FTA 체결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자료원 : KOTRA 국가정보

8.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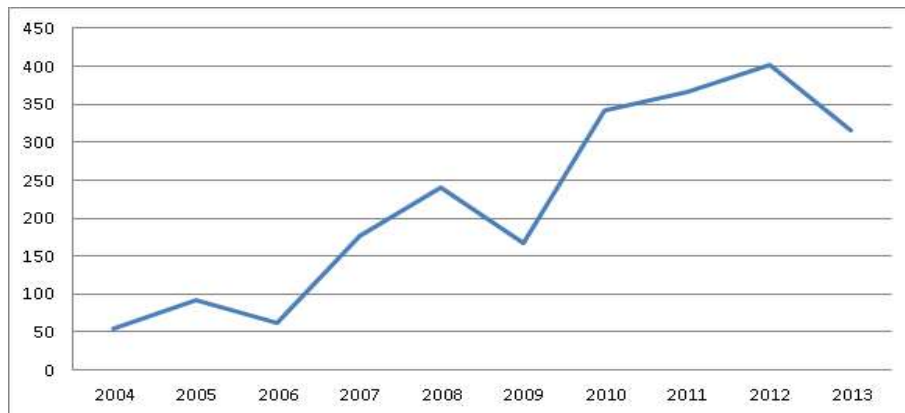
가. 중남미 시장 개요

- (기회의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
 - 최근 10년간(2004년~2014년) 평균 GDP 성장 3.4%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 총 GDP는 5조 7천 623억 달러(2014)로 전 세계 GDP의 7.3%
- (인프라 개발) 국가 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수요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기반 확보 및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활발
- (세계 생산기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세계 생산기지로 급부상
 - 저렴한 임금과 미국 및 유럽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중국을 대신하는 세계 공장의 유망지로 급부상
- (중산층 확대) 거대한 인구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대되는 중산층
 - 유엔에 따르면 중남미의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으로 중산층이 확대되어 자동차, 통신, 식음료 등 밝은 미래 소비시장 전망. 중산층 1.3억명 신규 편입으로 기초 구매력 증대

나. 중남미 TBT 동향 및 전망

- (증가추세) TBT 통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
 - 중남미 지역의 TBT 통보건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10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41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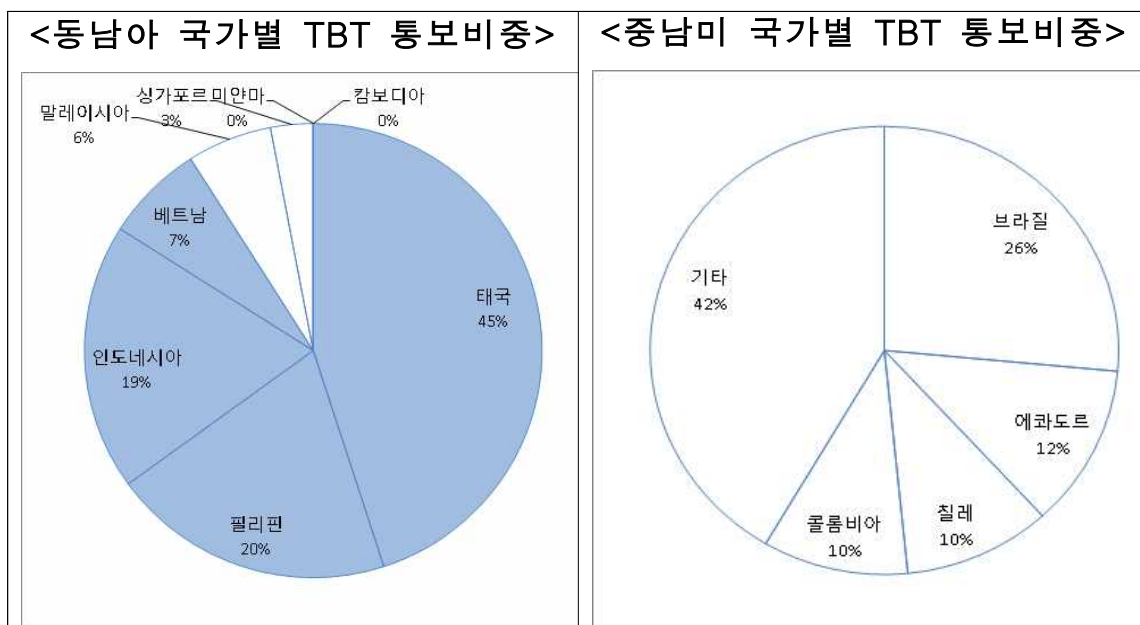
<중남미 TBT 통보 동향>



- 중남미의 지난 10년간 총 TBT 통보건수는 2218건으로 전 세계 통보문의 약 25%를 차지
- ▶ 전통적으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보호주의 무역을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

□ (국가별 동향) 국가별 고른 TBT 통보건수

- 중남미는 다른 지역과 달리 TBT가 소수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
 - 동남아시아의 경우 TBT 통보문 건수 상위 4개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TBT 비중이 전체의 90.9%를 차지
 - 이에 반해 중남미의 경우 아래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 고르게 분포



- (품목별 동향)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TBT 통보문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의약품(33.4%), 전기전자(16.2%), 화학세라믹(8.3%)

<중남미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760	34.2%	1
전기전자	345	15.5%	2
화학세라믹	197	8.9%	3
에너지	169	7.6%	4
농수산물	167	7.5%	5
생활용품	153	6.9%	6
교통/안전	135	6.1%	7
건설	88	4.0%	8
기타	57	2.6%	9
소재나노	49	2.2%	10
기계	48	2.2%	10
바이오환경	43	1.9%	12
정보디지털	8	0.4%	13
총계	2219	100.0%	

- (공동 TBT) 중남미는 태평양동맹, MERCOSUR 양대 공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 TBT가 도입될 전망
- (태평양동맹) 태평양 동맹은 EU형 공동체를 추구하며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어 향후 공동 TBT 도입도 가능
 - 태평양동맹은 EU 집행위와 유사한 본부를 설립하여 무역통상, 대외협력 등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제이슈 및 회원국 간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 무역 분야에서는 4개국 간 전체 수출 품목의 92%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주요 국제전시회 4개국 공동 참여, 해외 공동 IR 행사 개최 등이 지속 추진 중임.¹¹⁾
 - (MERCOSUR) 메르코수르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변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 TBT 통보 동향을 보이고 있음.

11) KOTRA, 2013.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 1991년에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회원국이며 태평양동맹과 경제 주도권 싸움을 지속 중
 -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최근 메르코수르 TBT 관련 결의안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 인증 등의 TBT 통보
 - 메르코수르 기술규정 결의안 초안에 근거하여 개별 회원국에서 통보한 TBT에는 식의약품 30건, 소재나노 2건, 생활용품 13건, 건설 1건, 에너지 7건, 기계 2건, 전기전자 8건, 바이오환경 2건, 화학세라믹 3건이 있음.
- (평판효과)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며 이를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라고 함.¹²⁾
- 만일 한 지역공동체에서 공동 TBT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전 남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12) KOTRA, 2013.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1) 중남미 주요 국가별 TBT 동향 및 전망

<중남미 국가별 TBT 통보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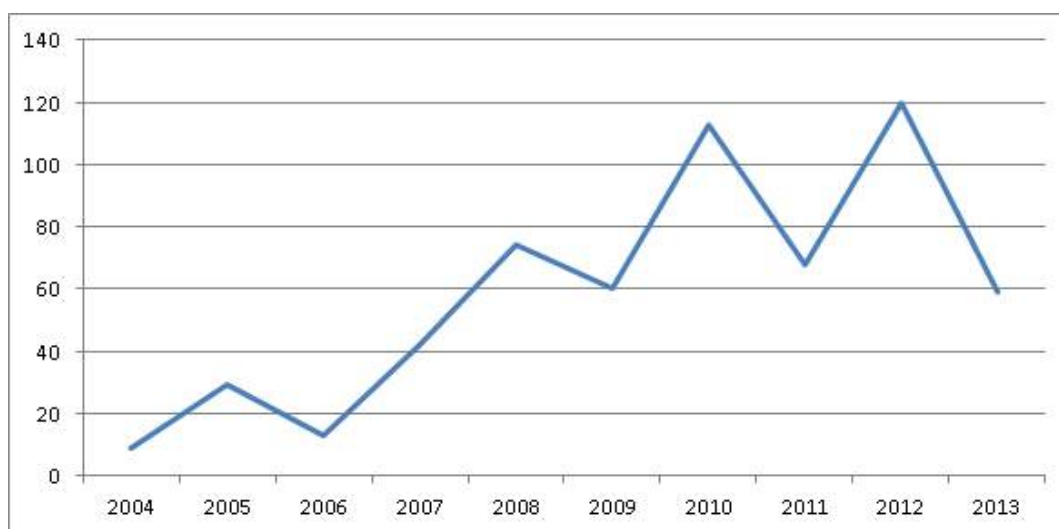
국가명	통보건수	비율	순위
브라질	587	26.5%	1
에콰도르	260	11.7%	2
칠레	226	10.2%	3
콜롬비아	223	10.0%	4
도미니카공화국	194	8.7%	5
아르헨티나	113	5.1%	6
트리니다드토바고	96	4.3%	7
코스타리카	90	4.1%	8
엘살바도르	72	3.2%	9
니카라과	71	3.2%	9
기타	287	13%	
총계	2219	100.0%	

가 브라질

(1) 지난 10년 브라질 TBT 동향

- (전반적인 동향) 브라질의 TBT 통보문은 중남미에서 가장 많으며, 지난 10년간 중남미의 총 통보건수 2495건 중 23.5%인 587건을 차지

<브라질 TBT 통보 동향>



- 브라질 TBT 통보문 건수는 2012년 12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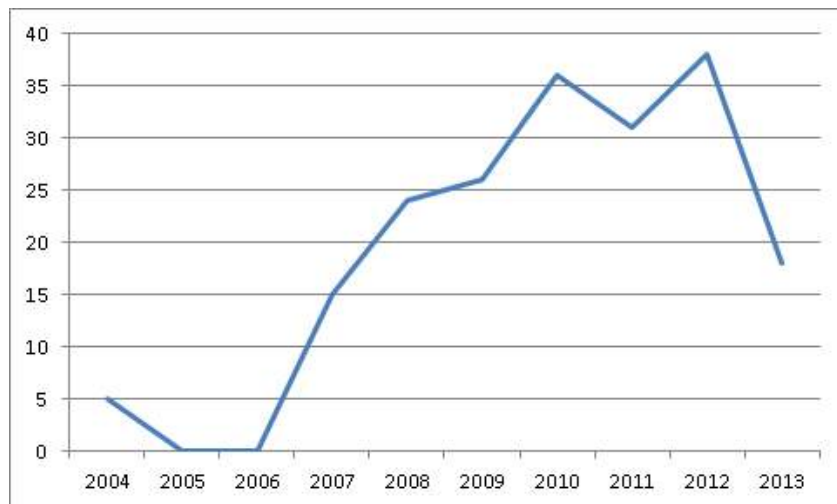
- (품목별 동향) 식의약품이 전체 587건 중 193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33%이며, 전기전자 98건(16.7%), 생활용품 66건(11.2%), 교통/안전 65건(11.1%) 순

<브라질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193	32.90%	1
전기전자	98	16.70%	2
생활용품	66	11.20%	3
교통/안전	65	11.10%	4
화학세라믹	34	5.80%	5
에너지	33	5.60%	6
농수산물	26	4.40%	7
기타	72	12.30%	8
총계	587	100.00%	

- 특히 식의약품이 전체 TBT 통보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브라질에서 불고 있는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웰빙 트렌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됨.

<브라질 식의약품 TBT 통보 동향>



- 브라질 국민들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식품 및 유기농 화장품 구매 트렌드를 보여줌. 이는 2012년부터 사회적으로 웰빙 트렌드가 나타난 것에서 기인함.
- 브라질의 통보문 G/TBT/N/BRA/592는 식품 알레르기나 식품 과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된 유발물질의 사전 포장된 식품에 강제 라벨을 표시

하는 규정 관련 결의안으로 식품 품목 TBT에서의 웰빙 트렌드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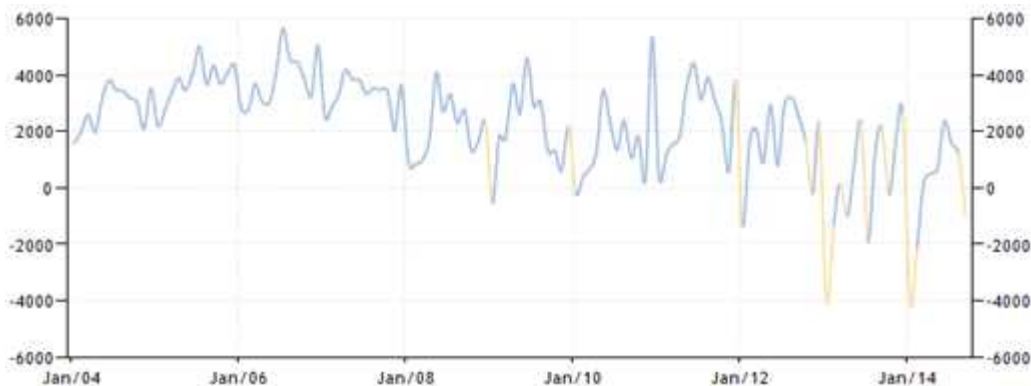
- 또한 G/TBT/N/BRA/552는 개인 위생제품, 화장품 및 향수에 사용될 수 없는 물질들의 목록을 수립하는 기술규정임. 이는 화장품 구성물질 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임.

[2] 브라질 TBT 전망

[가] 전반적인 TBT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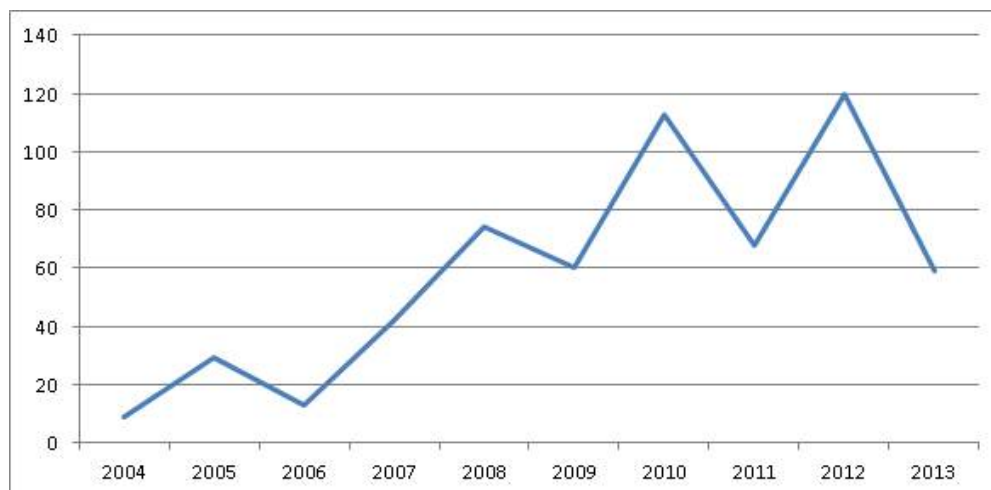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 브라질의 무역수지 적자로 TBT 강화 전망

<브라질 10년 간 무역수지>



자료원: www.tradinoeconomics.com

<브라질 TBT 통보 동향>



- 현재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 감소에 따라 TBT 통보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브라질 정부의 각종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세

<브라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152,994	-22.7	127,647	-26.2	25,272
2010	201,915	32.0	181,648	42.3	20,147
2011	256,040	26.8	226,240	24.6	29,800
2012	242,580	-5.3	224,158	-0.9	19,421
2013	242,178	-0.17	239,620	7.38	2,558
2014 1-6월	110,530	-3.4	113,022	-3.81	-2,492

자료원: 브라질 통상 MDIC (Aliceweb)

- 무역수지가 회복되지 않을 시, TBT 강화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 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TBT가 증가할 전망

□ (보호주의와 TBT) 자국 산업 보호 위해 TBT를 강화하는 보호주의 정책이 한동안 지속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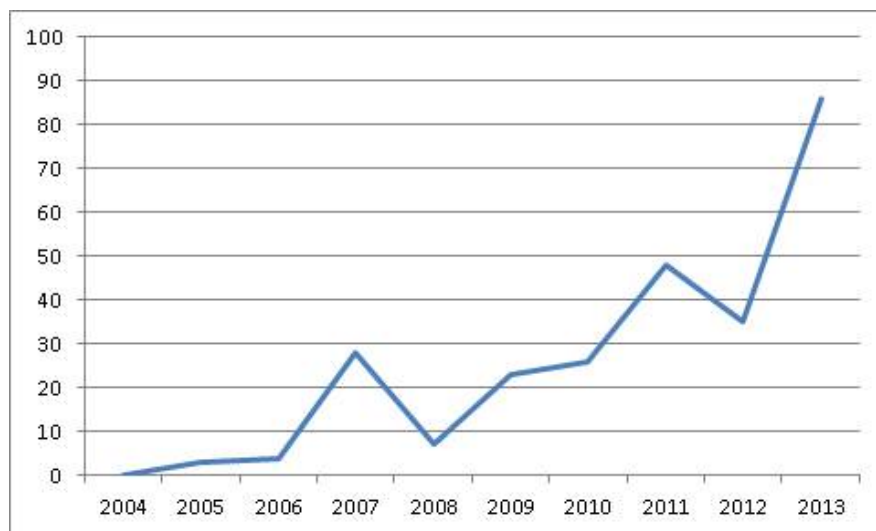
- 브라질 정부는 Buy National 정책, 기술장벽, 표준인증강화, 외국인투자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2007년에 Buy National 정책을 도입하고 2011년에 '더 큰 브라질' 정책으로 확산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의료 분야 200대 품목 관세율을 12-18%에서 25%로 인상

나) 에콰도르

(1) 지난 10년간 에콰도르 TBT 동향

- (증가추세) 에콰도르의 TBT는 전체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대폭 증가

<에콰도르 TBT 통보 동향>



- 특히 2013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 조치인 「고지 116」 발표 이후, TBT 통보건수가 크게 증가
 - 「고지 116」은 장난감, 식품류, 화장품, 섬유, 가전제품, 화훼 등 293개 제품에 적용
 - 대상 제품은 에콰도르 표준원이 지정한 품질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품목별 동향) 식의약품 전체 260건 중 61건(23.5%), 전기전자 48건(18.5%), 교통/안전 32건(12.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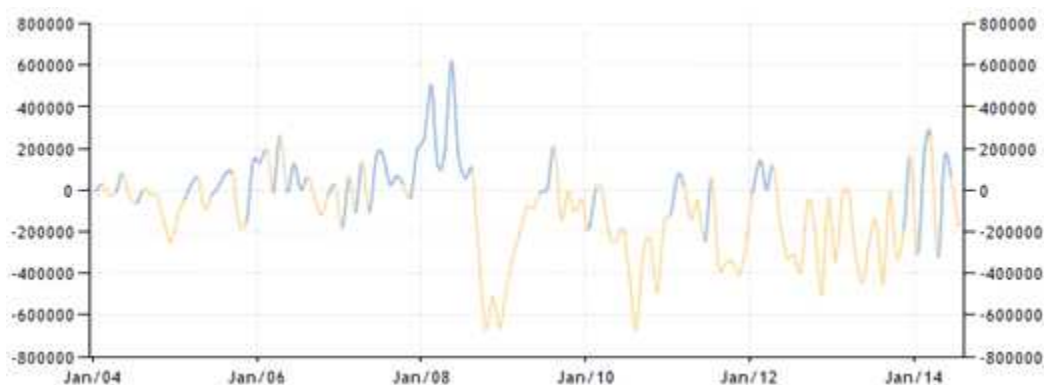
<에콰도르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61	23.50%	1
전기전자	48	18.50%	2
화학세라믹	45	17.30%	3
교통/안전	32	12.30%	4
생활용품	27	10.40%	5
소재나노	13	5.00%	6
에너지	10	3.80%	7
건설	8	3.10%	8
기타	6	2.30%	9
기계	5	1.90%	10
정보디지털	2	0.80%	11
농수산물	2	0.80%	11
바이오환경	1	0.40%	13
총계	260	100.00%	

(2) 에콰도르 TBT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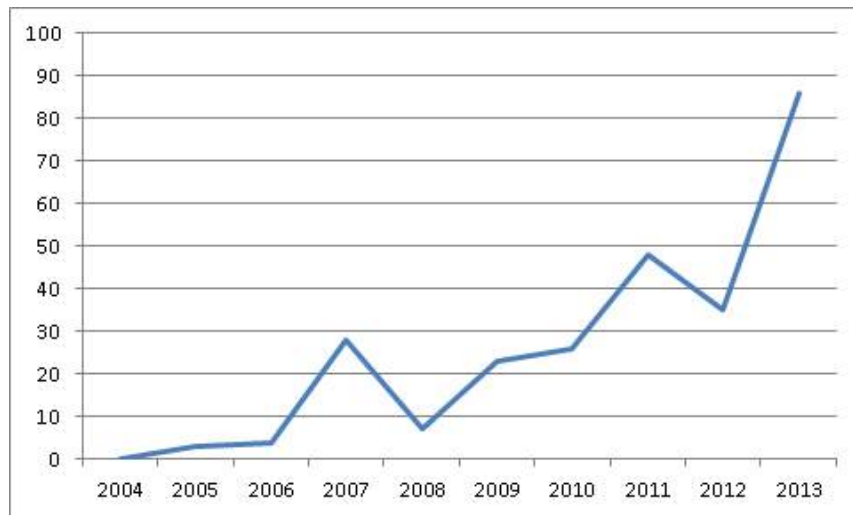
- (무역수지와 TBT) 에콰도르의 무역수지는 당분간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 억제 및 경쟁력이 약한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수입쿼터 및 TBT의 활용 가능성 증가

<에콰도르 무역수지 그래프>



자료원: www.tradinoeconomics.com

<에콰도르 TBT 통보 동향>



- 2003년까지 에콰도르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흑자로 반전
- 하지만 유가 안정세로 석유수출 소득 감소 및 수입량 증가로 경상수지는 2010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정부의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결국 정부 차원에서 수입 쿼터 범위 확장, 유동성 감소, 소비자 신용 구매의 제한 등 수입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BT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상기 「고지 116」 역시 무역수지 적자에 의한 외화부족으로 에콰도르 정부가 취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경우 TBT는 계속 증가할 전망

9. CIS

가. CIS 시장 개요

□ (러시아 주도 경제) 러시아가 전체 GDP의 약 80%를 차지

- CIS 통계위원회 기준, CIS 전체 GDP의 약 76.5%(2012년 기준)를 러시아가 차지
 - 러시아는 CIS 전체 수출의 72.7%, 수입의 71.4%, 투자유치의 74%(2012년 기준)를 차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경제력, 정치력을 바탕으로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 러시아 주도로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CIS판 EU) 조성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 발효(2011.7월)
 - 러시아 주도로 2015년 1월부터 CIS경제블록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 (풍부한 자원) 세계 지하자원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가스(35%), 석유(24%), 석탄(22%) 등
 - EU 및 주변국의 주요 자원 공급처 역할 수행

<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

국가	자원분야 세계 순위
러시아	천연가스(1위), 석탄(2위), 철광석(3위), 우라늄(3위), 석유(8위)
카자흐스탄	우라늄(2위), 석유(9위), 가스(19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자료원 : 각국 통계청

-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러시아 : 에너지 자원이 전체 수출의 약 70%, 재정 수입의 40% 차지(2013년)
 - 카자흐스탄 :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총 산업생산의 53% 점유
 - 아제르바이잔 : 전체 수출의 95%가 석유 및 가스¹³⁾
- * 국제 유가 10% 하락 시, 러시아의 GDP 약 1.4% 하락(S&P사 '12년 5월)

□ (제조업 육성정책) 정부주도 제조업 육성 추진 활발

- 자원의존 경제의 한계극복을 위해 산업 다각화 등 제조업 육성 추진
 -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후 자원의존 경제 발전의 한계를 절감
 - 2000년 후반부터 CIS 주요국들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CIS 주요국 제조업 육성 정책 >

국가	경제구조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자원 의존 경제 제조업 기반 미미	경제현대화, 스콜코보 혁신단지 등 신성장정책
카자흐스탄		2013-15 산업 개발계획, 산업 다각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2011-15 산업 발전 프로그램
아제르바이잔		인프라 확충 및 산업 다각화 추진
우크라이나	철강·농업 편중	산업별 육성 정책

자료원 : CIS 지역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

□ (거대 수입시장)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 수입시장

- CIS는 전체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 시장이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체제전환 이후 기반 산업 붕괴로 전 소비재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
-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수입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 2013년 CIS 통계위원회 기준 CIS 총 수입액은 4,679억 달러로 2000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음. 향후 연간 5,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13) CIS 통계위원회

- 과거 부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던 러시아는 2001년 이후 중산층이 형성되어 최근 시장 주도 소비층으로 부상
 - * 월소득 3만 루블 이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7%를 차지('13년 기준)
-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기계 설비 및 플랜트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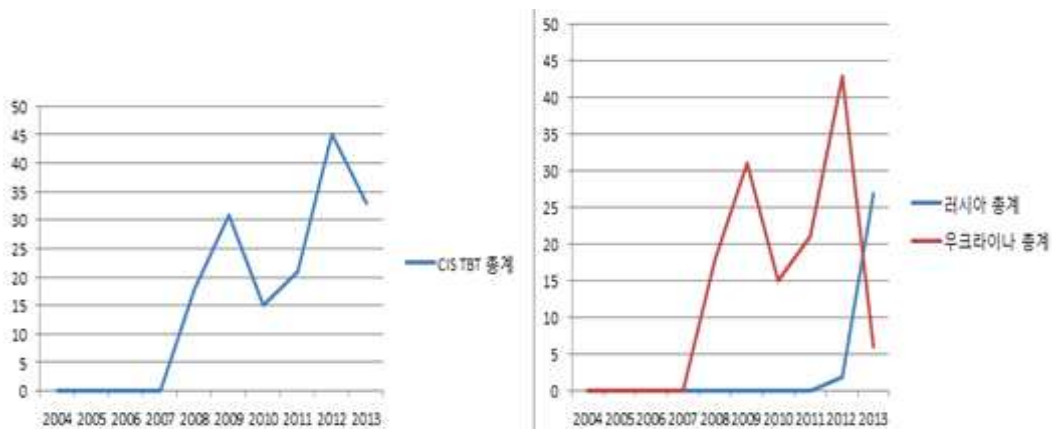
나. CIS TBT 동향 및 전망

1) 지난 10년간 CIS TBT 동향

□ (급격한 증가추세)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인프라 수요로 인한 경제성장에 따라 TBT도 급격히 증가 중

- 2007년 최초 TBT 통보 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임.

<CIS전체 및 국가별 TBT 통보 동향>



□ (인증제도 통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Custom Union)을 출범함에 따라 3국가는 인증 제도를 'CU 인증'으로 통일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2013년 2월부터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
 - 국가별 상이한 표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 현재는 러시아의 GOST-R인증과 CU 인증 사이의 과도기에 있으며, GOST-R이 만료된 품목은 포장재, 유아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등 8개 품목군임.

- 2014년 9월 기준, 총 33개의 기술규정이 새로 제정 또는 변경되어 시행중이며, EEU에 따르면, 2015년에는 3개의 기술규정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

□ (지역적 편중) 지난 10년 간 CIS 지역 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TBT를 통보

-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의 2004년~2013년도 TBT 통보건수는 0건임.

□ (품목별 동향)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기계 분야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CIS TBT 품목별 비율 >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68	41.7%	1
기계	24	14.7%	2
전기전자	13	7.8%	3
기타	12	7.4%	4
생활용품	11	6.8%	5
화학세라믹	10	6.2%	6
에너지	8	4.9%	7
교통/안전	7	4.3%	8
농수산물	6	3.7%	9
건설	3	1.9%	10
정보디지털	1	0.6%	11
총계	163	100%	

2) CIS TBT 전망

□ (CIS 공동 TBT) 2015년 1월 부로 관세동맹(CU)의 다음단계에 해당하는 지역통합체 EEU 출범에 따라 TBT 정책 통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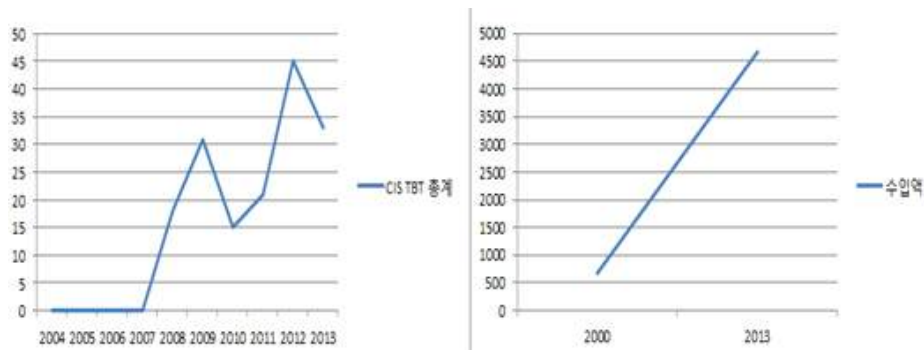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들이 EEU 창설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EEU 출범 예정
 - 2015년 중으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

- 기술 및 위생검역 관련 규정을 통해 역내 공통 상품부호, 인증서 및 적합성 신고서 양식 등 각종 문서 양식과 평가기관 리스트를 통일하는 등의 역내 공동경제권 확립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EU의 CE 인증과 같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 국가들의 통합 인증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수입 증가와 TBT)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수입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내 시장 보호 위해 TBT 증가 전망

- 2013년 CIS 통계위원회 기준 CIS 총 수입액은 4,679억 달러로 2000년 대비 약 7배 증가함.
- 수입 증가에 비례하여 TBT 통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수입 증가에 따라 TBT 증가 전망

<CIS TBT 통보 동향 및 수입액 그래프>



□ (탈 CIS 추진국과 TBT)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EU의 TBT를 채택할 전망

-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몰도바와의 FTA를 무효화
 - 러시아는 몰도바에는 2014년 8월 31일부터, 우크라이나에는 협정이 발효되는 2016년 1월부터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이번 관세부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CIS 국가 간 체결한 FTA 효력을 자동 상실함.

10. 중국

가. 중국 시장 개요

□ (세계 최대의 시장) 2014년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 세계 1위 전망

- 경제 고속성장에 따른 개인 소비력 급증
 - 소득증가가 개인의 소비로 이어져 2013년에 최초로 GDP 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 비중을 초과함.
- 2014년 상반기 상품 무역규모 2조209억 달러로 세계 1위의 교역국가
 - 수출 1조619억 달러, 수입 9590억 달러 기록
 - * (2위) 미국 1조9808억 달러, (3위) 독일 1조3937억달러, ... (8위) 한국 1조0752억 달러

□ (G2 등극)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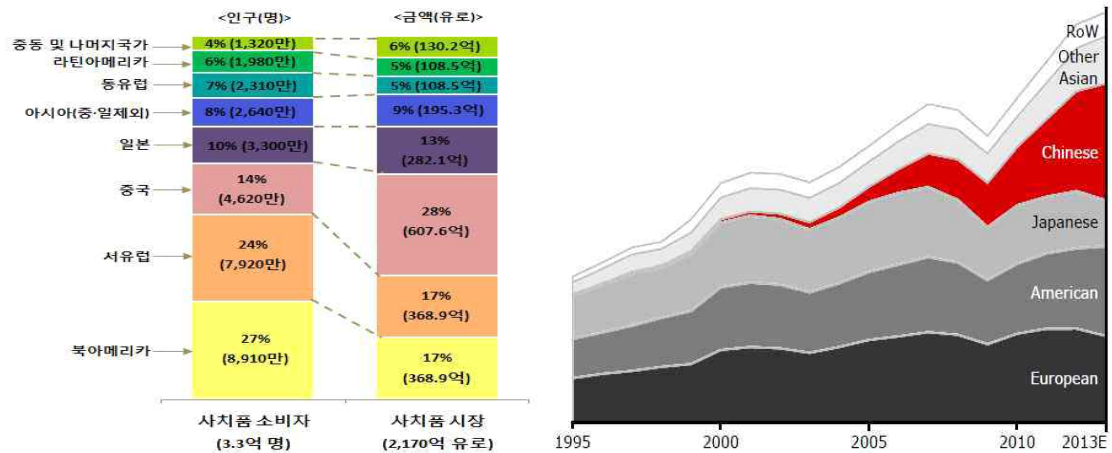
- (과거) 저렴한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한 생산 위주의 산업구조
- (현재) 기술력과 자본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여 선진국 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 * 포춘 500대기업 중국기업 수 : 69개사('11년) → 73개사('12년) → 89개사('13년)
 - * 중국에 대한 인식 : (WSJ 설문조사) "G1은 중국이 될 것이다" 50% 응답
 - * 미국 추월시기 전망 : (IMF) 2016년, (이코노미스트) 2018년, (세계은행) 2020년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 위상 (2013년 기준) >

무역규모	1위(\$4조1,600억)	외환보유액	1위(\$3조8,213억)
수출	1위(\$2조2,096억)	GDP	2위(\$8조9,393억)
수입	2위(\$1조9,504억)	FDI	2위(\$1,175억8,600만)

□ (질적 변화 중인 내수시장) 중국 내 고소득층 및 젊은 소비층의 등장으로 인한 고급재 및 서비스 수요의 대폭 확대

<세계 고급소비재 소비 국가별 분포 및 소비인구 비중>



자료원: Bain and Company(2013.01)

자료원: Bain Global Luxury Report 2013

재인용(2013.12)

- 잦은 식품안전 사고 등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이 보장된 식품을 선호하며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식품, 웰빙,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확대됨.
- 여행, 문화생활 등 여가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소비 수요가 급증함.

□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 중앙정부 주도형의 녹색성장 정책 실시

- 양적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
-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 도입
 - 최근 신환경법 도입 등 기업의 환경오염물질배출량 관리 규제 강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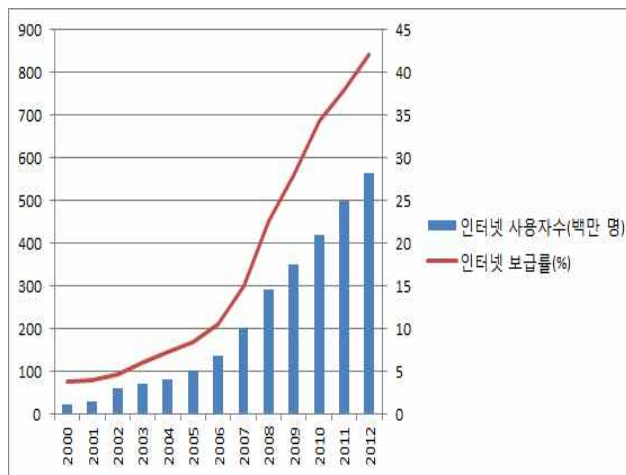
□ (신도시화 계획) 내수기반 국가성장전략의 근간 마련

- 신도시화 정책으로 도시 인프라, 신도시 건설 투자 등 전체적인 인프라 수요 확대
 -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및 판자촌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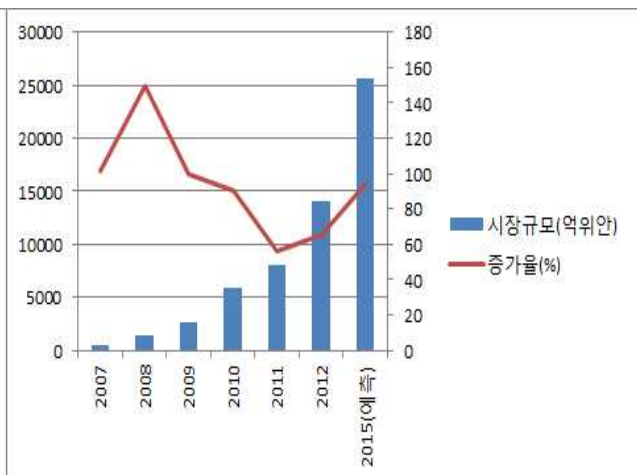
□ (ICT 시장) 막강한 내수시장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 중

- ICT 산업 규모가 한국의 5배인 약 1985조원으로 ICT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
- 인터넷, 휴대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발전 잠재력 풍부

<중국 인터넷 사용자수 및 보급률 추이>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 규모 추이>



자료원: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조사('12)

자료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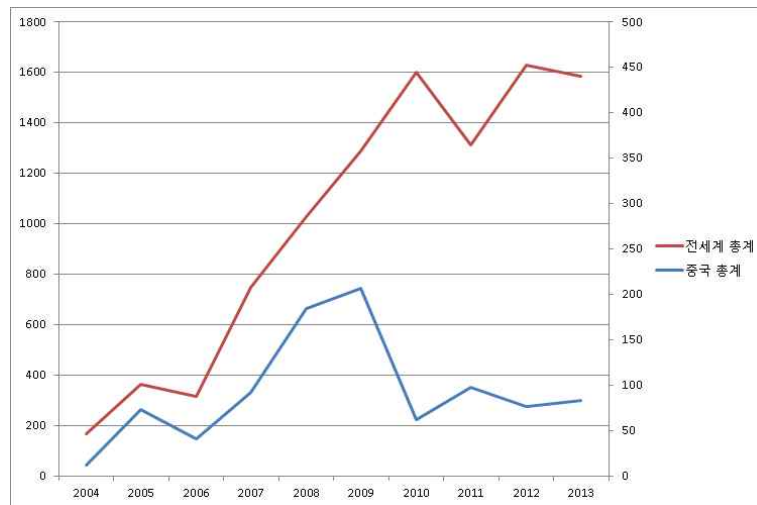
나. 중국 TBT 동향 및 전망

1) 지난 10년간 중국 TBT 동향

□ (전반적인 동향) TBT 통보문은 2009년까지 급격히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통보 중

- 2010년도에 TBT 통보건수가 다수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통보 중이며, 이는 2011년에 다소 감소한 뒤 꾸준히 통보되는 전 세계 TBT 통보 추세와 유사

<중국과 전 세계 TBT 통보문 동향>



□ (품목별 동향) 전 세계 TBT 품목동향과 달리 식의약품 분야 통보문이 현저히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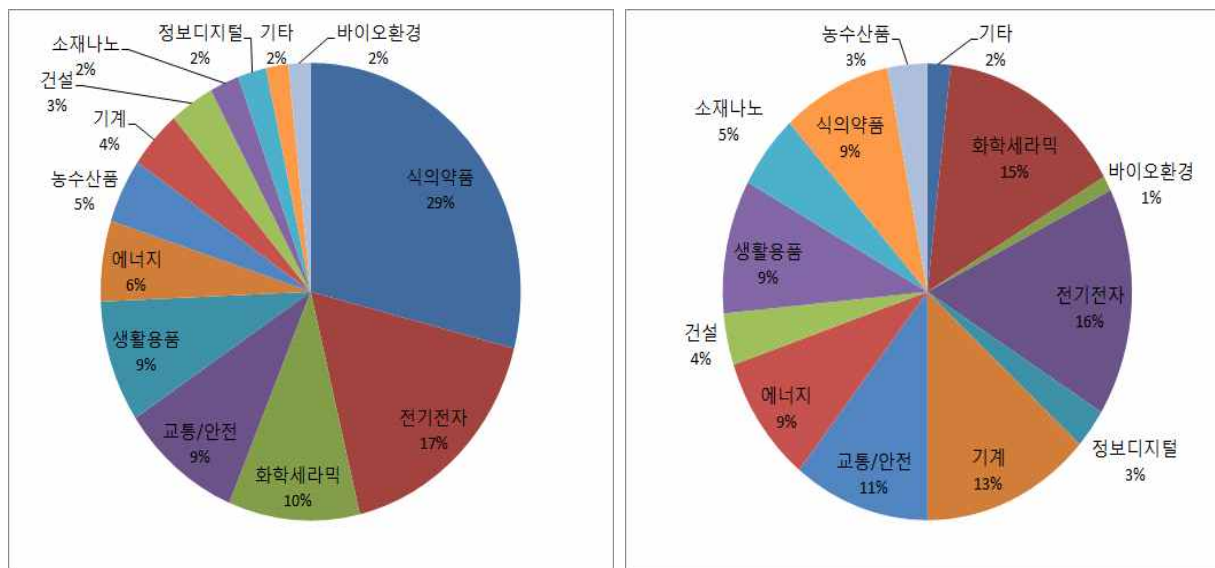
- 중국에서 TBT 통보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전자로 16.2%를 차지하며 이어 화학세라믹 14.8%, 기계 13.4% 순

< 중국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전기전자	150	16.2%	1
화학세라믹	137	14.8%	2
기계	124	13.4%	3
교통/안전	100	10.8%	4
생활용품	88	9.5%	5
에너지	84	9.1%	6
식의약품	80	8.6%	7
소재나노	49	5.3%	8
건설	34	3.7%	9
농수산물	29	3.1%	10
정보디지털	26	2.8%	11
기타	17	1.8%	12
바이오환경	10	1.1%	13
총계	928	100.0%	

-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 TBT 통보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의약품 통보문 비중이 현저히 낮고, 기계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전세계와 중국의 TBT 품목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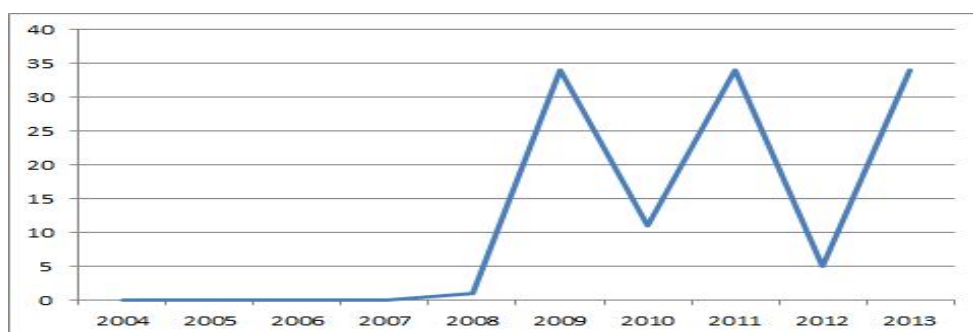


- (전기전자 · 화학세라믹 · 기계) 세계경제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중국은 개혁 · 개방 이후 매년 제조업 기반 연평균 11.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기계 관련 TBT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2) 중국 TBT 전망

- (환경정책과 TBT) 정부주도의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증가 전망

<중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동향>



- 중국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중국 국무원의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 예정
 -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EU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의지 표명 중¹⁴⁾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TBT 통보건수는 현재까지 1건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에 따라 향후 TBT 증가 전망
 -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에서 15%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TBT를 매년 2,3건씩 꾸준히 통보¹⁵⁾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강화 전망
 - 교통/안전 분야에서 연비 관련 TBT는 총 8건이며, 2011년과 2012년에 TBT 통보는 0건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 총 3건을 통보하며 증가 추세

□ (산아제한 완화정책과 TBT)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폐지로 영유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안전 및 위생 관련 TBT 증가 전망

-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완화정책으로 영유아 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 강화 중
 - 2014년 5월부터 수입 유제품 및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 신규 관리 규정을 실시했으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전량 수입금지함.
- 2011년 전까지 영유아제품 TBT 통보 수는 0건이었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건을 통보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음.
 - 영유아 고무젖꼭지, 아기 놀이 울타리, 아기침대, 가정용 놀이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TBT 활용 안전 요건 강화
 - 산아제한 완화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증가하고, 안전기준 강화로 향후 영유아제품 관련 TBT 증가 전망

14) KIEP. 2013.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 동향』

11. 일본

가. 일본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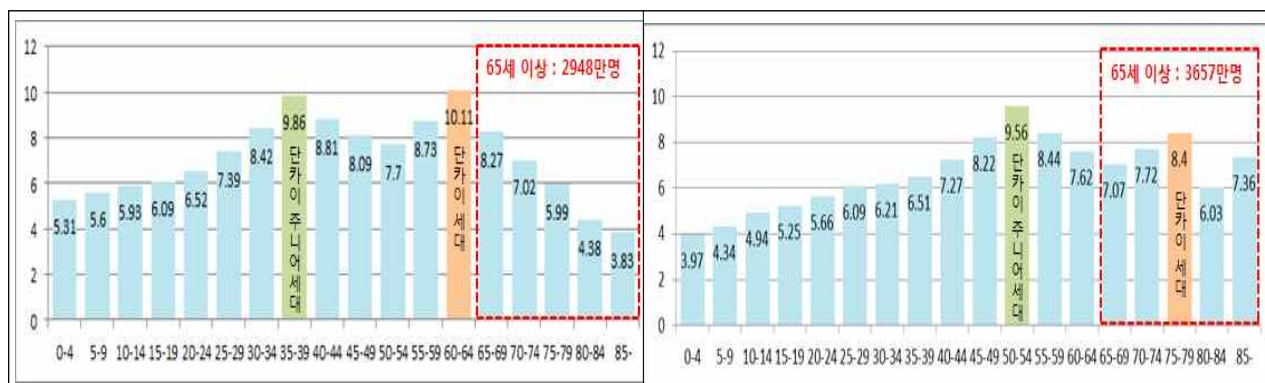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 IMF에 따르면,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3위 경제규모 보유
 - 일본의 명목 GDP 규모는 5.96조 달러로 미국(16.2조 달러), 중국(8.22조 달러)에 이어 3번째
- GDP 대비 무역 비중은 28%로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은 시장
 - * 한국(87.4%), 미국(22%), 프랑스(42.7%), 중국(49.5%)
- JETRO에 따르면, 일본의 2013년 수출액은 7,192억달러, 수입액은 8,389억 달러로 교역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4번째 규모임.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장

- 일본 총 인구는 1억 27백만 명으로 2060년에는 20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 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

<2010년 → 2025년 일본 연령계층별 인구분포>



자료원 : 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약품이나 헬스 케어 등에서의 수요 증가 예상

□ 연구개발비 및 특허 출원 건수 모두 세계 2위인 기술 대국

- 연구개발비 투입 규모 전 세계 2위
 - 일본은 연간 17조 400억 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미국의 33조 1000억 엔에 이은 세계 2위 (이하 중국, 독일, 프랑스 순임)
 - 연구자 총 수는 미국, 중국의 뒤를 이어 3위. 다만 인구 1만 명당 연구자수로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 (한국이 58.0명으로 2위)
 - * 자료원 : 일본 문부성 과학기술요람 2013
- 신기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신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이 약 5만 7000건으로 세계 1위, 2위가 일본으로 약 4만 4000건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 * 2013년 특허 국제출원 건수 / 세계지적소유권기권(WPO)

□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확대 전망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도입필요성 증대
 - 원자력발전 전면중단에 따른 전력생산량에서의 화력발전 비중 증가(전체 전력생산량의 90%)로 연료조달 비용 급증
 - * 日화력발전 연료조달 비용 : 2.3조엔(2011) → 3.1조엔(2012) → 3.8조엔(2013)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日정부의 신성장전략 중 중점 추진분야
 -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실시(2012.7월) 등으로 동 산업 중점 육성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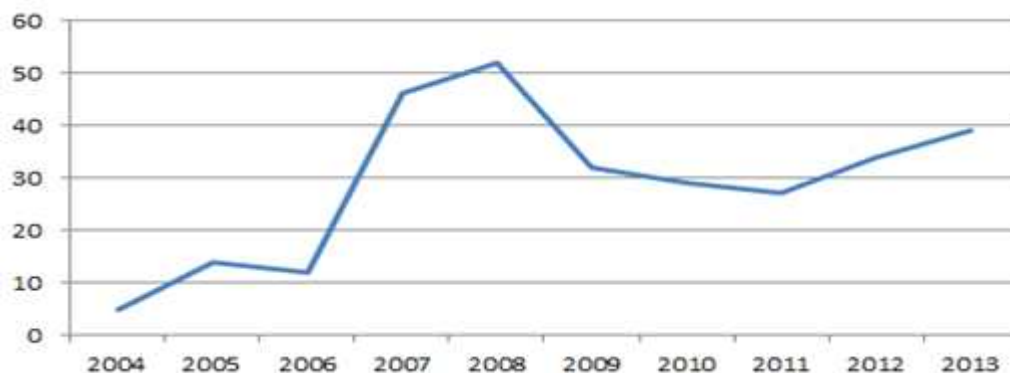
나. 일본 TBT 동향 및 전망

1) 지난 10년간 일본 TBT 동향

□ (전반적인 동향) 200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 이후 꾸준히 TBT 통보

- 2008년에 52개의 TBT 통보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다시 증가

<일본 TBT 통보 동향>



□ (품목별 동향) 식의약품 항목이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화학세라믹(약 11%), 전기전자(약 1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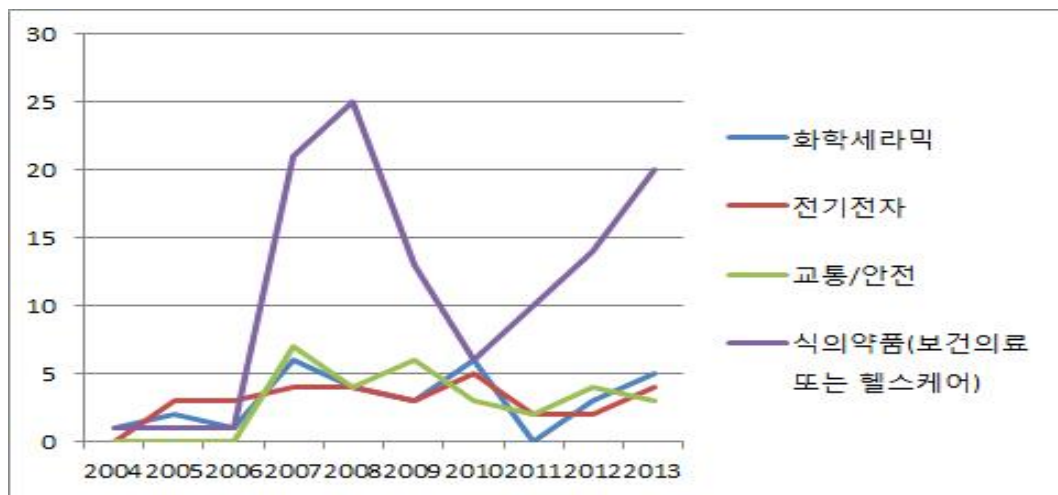
<일본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112	38.6%	1
화학세라믹	31	10.7%	2
전기전자	30	10.3%	3
교통/안전	29	10.0%	4
정보디지털	24	8.3%	5
에너지	19	6.6%	6
생활용품	13	4.5%	7
기계	10	3.4%	8
소재나노	7	2.4%	9
농수산물	7	2.4%	9
건설	4	1.4%	11
기타	3	1.0%	12
바이오환경	1	0.3%	13
총계	290	100.0%	

- (식의약품) 식의약품 분야 TBT 통보문은 전 세계 평균인 29% 보다 약 10%가량 높음.
- 급속한 고령화로 의약품 분야 수요가 많아 관련 TBT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통/안전) 교통/안전 분야 TBT 통보문은 2007년 급격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화학세라믹과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TBT가 통보되고 있음.

<일본 주요 품목별 TBT 통보 동향>



2) 일본 TBT 전망

□ (국제표준화와 TBT) 일본정부는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TBT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내표준(JIS)과 국제표준(ISO/IEC)을 동시에 작성 및 제안함으로써 국제표준 획득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기존의 국제표준화 과정에 비해 일본 국내 심의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진적이고 다양한 국제표준 제안이 가능
 - 기업 스스로 국제표준제안이 가능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일본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
- EU와 신성장분야 규격 통일 및 국제화 추진
 - 2014년 7월 EU와 연로전지 차, 의료/간호 로봇, 화학물질 관리, 광물 등록

제도, 개인정보 취급 5개 분야의 규격과 규제를 통일하기로 결정

- 규격 통일과 함께 규격의 국제표준화도 일본과 유럽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 규격을 미국과 아시아시장에까지 확산시킬 계획

○ 독일, 중국과 에코라벨 상호 인정 협약 체결

- 2014년 11월 11일 독일의 에코라벨 ‘블루 엔젤’을 관리하는 환경보호청과 협약을 맺으며 에코라벨 부여 기준을 통일하고 각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에코라벨 인증서를 상호 인정

□ (실버산업과 TBT) 실버시장 지속적 확대로 인해 실버산업 유망분야인 의류 및 생활용품, 식의약품,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관련 TBT 증가 전망

- 2025년에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0%(약 3650만 명)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실버산업은 총 100조엔 규모의 초거대 시장이며, 2030년에는 약 111조엔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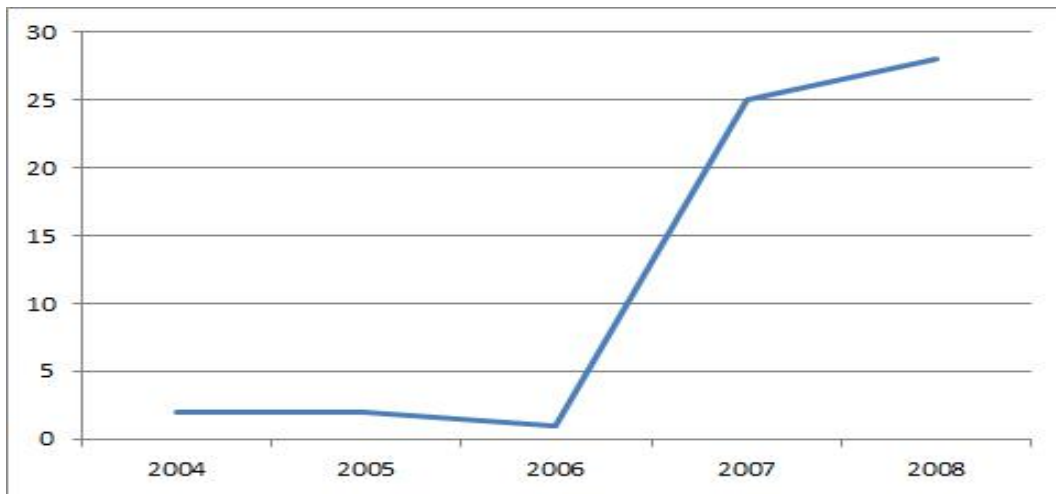
< 실버산업 시장규모 추이 >



* 자료원 : 닛세이키초연구소 추산, 일본 실버서비스산업 진흥회 종합, 동경대학교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작성

- 고령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의류 및 식의약품, 정보통신, 생활용품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TBT 증가 전망

<정보통신, 생활용품, 식품 분야 TBT통보문 추이>



- 일본의 고령자 소비지출이 급증한 2004년~2008년에 정보통신, 생활용품, 식품분야의 TBT가 급격히 증가했음.
- 최근 10년간 식의약품, 정보통신, 생활용품 분야 TBT는 증가하거나 꾸준히 통보되는 추세

<시니어 대상 주요 제품군>

분야	주요 제품
건강관리, 의료	보행기/보행차, 수동/전동 휠체어 등
의류 및 생활용품	의류, 고령자용 기저귀 등
식품	요양식, 개호식, 의료(유동)식, 식품 택배 서비스 등
정보통신	실버폰(효도폰), 인터넷 이용 가능 TV 등

III

향후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1. 향후전망

□ 증가추세 지속

- 각 지역별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TBT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 증가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 보호무역주의 대두,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따른 역내 시장 보호 수단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TBT 통보국 확대

- 지난 10년간 TBT 통보건수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통보국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2004년에는 TBT를 통보했던 국가가 53개국에 불과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 113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지역협정별 공동정책

- 도하 라운드 타결 실패 이후 WTO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지역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협정별 공동 TBT 정책이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는 EU, GCC 등에서 공동 TBT가 통보되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EAC, 남미 MERCOSUR, EEU 등에서도 공동 TBT는 증가할 전망

2.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 R&D를 통한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 (R&D동력으로서의 TBT) TBT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부분의 TBT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또는 그 이상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TBT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R&D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해외인증취득) 또한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 필요
 - 기술력이 있어도 해외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짐.
 - 해외인증 취득은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 및 현지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확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 필요

□ 지역공동체 공동 TBT 우선 대응 전략 추진

- 최근 들어 TBT도 지역협정별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한 번 극복하면 해당 지역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음.
 - 현재는 EU, 중동의 GCC 등에서만 공동 TBT가 도입되고 있지만, 향후 CIS,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공동 TBT가 증가할 전망
 - 공동 TBT 증가로 기업들은 각 국별 TBT에 대응할 필요없이 공동 TBT를 극복할 경우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수출기업들은 전략적으로 공동 TBT가 도입되는 지역의 기술규정에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정부간 협업 필요

□ 상호인정제도(MRA)를 통한 TBT 완화

- 상호인정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국가 간 서로의 인증을 인정해주는 제도
 - MRA 체결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경우 다른 국가의 인증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제품 판매 가능
-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외국의 TBT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 필요

□ 규격통일

-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통해 규격 통일화 필요
 - (일본) 일본의 경우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EU와 자동차, 의료/간호 로봇 등의 분야에서 규격 및 규제를 통일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중국) G2로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2위의 수입시장이 되면서 중국의 CCC 인증이 세계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증으로 부상
 - (중재자로서의 한국) 한국은 중·일의 경쟁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북아 규격통일을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 획득을 추진해 가야 함.
 - (사례) 실제로도 한국표준협회에서는 2014년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 과제”를 시행하고 있어 향후 3국의 공통 표준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 나아가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제표준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국내표준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국내표준 획득만으로도 국제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기업의 국제표준제안이 가능하게 되면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음.



작성자

◆ 통상지원총괄팀 주용선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4-049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윤 원 석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